

협상(協商)

(협상 :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서로 의논함)

등장인물

- 하채운 - 30대 녀 / 경위.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주협상가.
- 민태구 - 30대 남/ 인질납치범.
- 안혁수 - 40대 / 경감.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수사관
- 문청장 - 50대 / 치안감. 서울지방경찰청장.
- 한과장 - 40대, 女 / 경정.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과장.
- 공비서 - 40대 / 청와대 안보수석실 비서관.
- 구회장 - 60대 / 무기 로비스트.
- 황실장 - 50대 / 청와대 안보실장.
- 김경장 - 20대 / 경장.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 박민우 - 20대 / 경장.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정보관
- 이다빈 - 20대 / 경장.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보조 협상가
- 김소령 - 40대 / 공군 특전사 SART 팀장.
- 윤사장 - 50대 / 신문사 사장.
- 작전관 - 40대 / 중령. 상황실 작전관.
- 최과장 - 40대 / 국정원 과장.
- 정팀장 - 40대 / 경정. 인질.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팀장.
- 이상목 - 40대 / 인질. 국정원 블랙 요원.
- 뽕뽕이 - 30대 / 태구의 부하.
- 박차장 - 50대 / 국정원 2차장.
- 손중장 - 60대 / 공군 사령관.
- SART 부팀장과 대원들 1,2,3,4,5 / 국정원 1,2 / 가족인질 남,녀,자,녀 / 상황실 경찰요원들 / 상황실 군인요원들 / 앵커 / 필리핀 강도 / 유현주 / 그 외.

1. 타이틀 시퀀스 - 한남동 인질 사건 / 낮.

어느 평범한 단독주택가. 카메라 천천히 다가가면, 경찰들이 보이고, 집 안에서 두 명의 동남아 사내가 남자인질과 여자인질을 잡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끼이이익!!!!’ 거친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현장 근처로 달려와 멈춰서는 택시 한 대.

택시에서 내리는 30대 초반의 여인(채운). 짧은 원피스에 하이힐, 번들거리는 화장으로 요란한 그녀. 사람들을 뚫고 안으로 들어간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폴리스 라인을 넘는 채운을 발견하는 사내... 서울경찰청 위기 협상팀 수사관 **안혁수(49)**. 채운 꼴 보고 입 짹 벌어진다.

혁수	뭐여? 시방?
채운	소개팅 있다 그랬잖아요.
혁수	갈아입고 와야재! 시방 카메라 다 오고 응?
채운	(짜증) 빨리 오래매요?
혁수	(채운의 몸을 킁킁) 뭐여? 술 먹은겨?
채운	그냥 소맥한잔... (버럭) 아 씨바 휴가는 뭘 휴가야 이게!
혁수	(머리 아프다) 아이고야...

돌아버리는 혁수, 차량 안으로 채운을 집어넣고 따라 들어간다.

<협상팀 차량 안>

컴퓨터 기기와 모니터들로 채워져 있는 차 안. 채운을 보고 인사 하는 위기 협상팀 정보관 민우와 보조 협상가 다빈.

혁수	(채운 뒤에서 조잘조잘) 내가 니 땀시 요새 고지혈증 오고! 심근경색도 오고! 응?
채운	(옷을 훌러덩 벗으며 다빈에게) 상황 보고!
혁수	(화들짝 놀라 뒤돌며) 아이~~
다빈	인질 남녀 각 1인에, 동남아 계열의 30대 인질범 남자 둘. 무기는 휴대용 나이프입니다.
민우	영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어 전혀 안되구요...
혁수	(가글을 컵에 따르며) 아, 그러니까 니를 불렀재.
채운	(립스틱 휴지로 닦으며) 요구사항은?
다빈	헬기 불러 달라는데요? 탈출용으로... 단순 강도로 보입니다.
혁수	(가글컵 건네며) 잡놈들이 어서 본 건 있어가지고.
채운	(민우에게) 팀장님은?
민우	(계속 모니터를 보며) 고전중입니다.

가글로 입 행구는 채운이 모니터 보면,

<인서트 - 모니터>

정팀장이 마당에 서서 인질범들과 협상중이다. 하지만 말이 안 통해 답답한 정팀장, 돌아선다.

가글 뱉어서 혁수한테 주고 다빈에게 이어폰을 받는 채운, 심호흡을 하더니 이어폰을 귀에 꽂으며 차문을 확 열고 밖으로 나간다. 뒤따라 나가는 혁수와 다빈.

<대문 앞>

채운이 사건 현장으로 걸어가는데, ‘뽕그랑’ 인질범이 유리창을 깨며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모습을 보는 채운이 혁수가 들고 있는 확성기 뺏어 들고 다시 돌아가 폴리스 라인 앞에 선다. 채운의 제복 등에 <Crisis Negotiation POLICE 위기협상팀> 위기협상가 마크가 큼지막하다.

채운 전원 이십 미터 후퇴!!!!!!!

<인서트 - 모니터>

모니터를 보고 있는 정팀장이 채운의 확성기 소리에 인상을 쓰며 돌아본다.

전경들, 경찰들, 보도진들 어리둥절, 채운 보면...

채운 뒤로 확 빠지라고!

혁수 (주변에다) 자자! 이제 전문가 왔으께~ 다들 협조 쫘 합시다!!!
 뭉터냐? 뒤로 빼라고!

전경들... 보도진, 인파들 뒤로 밀며 바리케이드 후퇴시키고... 대문 입구에 모여 복새통을 이루는 경찰들, 차와 옆 집 지붕 위에 올라가 집 안을 향해 카메라 터트리고 있는 기자들.

<현관문 입구 모니터>

모니터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채운, 혁수, 다빈. 정팀장과 특공대장이 모니터를 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혁수 정팀장님, 하경위 왔어.

정팀장 (짜증) 니가 여기 왜 왔어? 휴가 아냐?

채운 그러니까요. 팀장님이 특별히 주신건데... (혁수 짜린다)

혁수 아따. 내가 긴급호출 했지. 아니, 뭔 말이 통해야 뭐든 할 수 있을 거 아냐?

채운 괜찮습니다. 특이 사항은요?

혁수 (정팀장 한번 힐끗 바라보더니 불쑥) 특이사항은 개뿔.

 도통 뭐라 씨부리는지 알 수가 없으께, 뭐...

채운 일단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정팀장 됐어. 특공대장님, 진입 준비해주세요.

채운 ?? 대화도 안 해보고 그냥 진압합니까?

정팀장 ‘1)라포’ 형성 자체가 안 돼. 진압한다.

채운 30분! (정팀장이 보면) 30분만 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진압하시고요.

정팀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채운.

정팀장 20분. 대신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 감지되면 바로 진입한다.

채운 (밖으로 나가며 다빈에게) 봉고차 한 대 시동 걸어서 집 입구에 갖다 대.

다빈 넵.

채운의 말을 듣고 뛰어가는 다빈. 집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채운.

걸어 나가는 채운을 바라보는 정팀장의 걱정스런 시선에서.

<협상 차량>

헤드폰을 쓰고 모니터로 상황을 보고 있는 민우, 상자 시계 타이머를 누르면 20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뭔가를 타입하기 시작하는 민우 앞에 귀여운 펜던트 인형이 보인다.

“5월 18일 18시 17분. 한남동. 협상관 하채운. 협상 시작.”

<집 마당>

확성기를 들어 올리는 채운.

채운 (확성기에 대고)

I'm Inspector Youn Ha Chae from the Seoul Police Station. I'm here to help you. You can talk to me about what you want.

(저는 서울 경찰청 광역 수사대 경위 하채운입니다. 저는 당신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요구사항 저에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한 바퀴 돌며)

I'm unarmed. I'm going to come closer to have a better conversation.

(저는 비무장입니다. 얘기나누기 편하도록 좀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마당>

문 안쪽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채운.

<모니터>

유창한 영어를 쓰는 채운을 보고 감탄하는 혁수.

혁수 (놀리듯) 이야~ 유학파라 그런지 뭐가 달라도, 다르네 잉!

정팀장 (‘끄응~’) ...

혁수 (정팀장 보며) 근데 뭐라는 거?

정팀장 (“이런 씨바...”하는 표정으로 빤히 바라본다) ...

1) 라포 - 협상에서의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 협상관과 인질범과의 공감대를 지칭한 단어.

<마당>

문을 넘어 인질범들이 보이는 쪽으로 다가가는 채운.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던 인질범들이 깨진 창문 사이로 채운을 슬쩍 본다.

<협상차 지붕>

인질들을 향한 지향성 마이크에 목소리가 잡히기 시작한다.
헤드폰으로 소리를 듣고 모니터에 기록하고 있는 민우.

<마당>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다가 영어로 말하는 강도.

<협상차량>

재빨리 녹음된 언어를 검색하는 민우, 화면 위에 여러 언어들이 떠오르더니 그 중에 하나와 매치된다.

<마당>

마당 한 가운데 서 있는 채운.

민우(무전) 타갈로그어예요. 필리핀 쪽 계열입니다.

강도1 Empty the road and prepare a helicopter!

Or all hostages die and we all die!

(도로 다 비우고 헬기부터 준비시켜! 아니면 인질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채운 Nobody dies here today!

We are looking for a way to get the helicopter now.

But you know it's not easy, right? Please, give us more time.

(오늘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헬기를 찾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강도1 How much?

(언제까지?)

채운 Very soon. We are doing our best.

You'll be out of here safely. I promise.

(곧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여기서 안전하게 빼내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집 안을 살피다가)

Can I come inside? There's too much noise out here.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여긴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려서요)

<모니터>

채운의 말에 놀라는 정팀장.

정팀장(무전)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마당>

인질이 서로 상의하더니, 잠시 후 덜컥 문이 열린다.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채운.

정팀장(무전) 하채운, 현 위치 지켜! 이탈하지 말라고!

채운(무전) 여기선 내부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민우야, 이제부터 소리 니가 잡아.

민우(무전) 네. 조심하세요!

이어폰을 빼서 주머니에 넣고 걸어가는 채운, 문을 열고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집 안>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채운, 내부 상황이 눈에 들어온다. 인질들과 눈을 맞추는 채운, 거실 한쪽에 놓인 TV 속에 음소거가 된 뉴스에서 인질극 상황이 보여 지고 있다. 강도1의 목에 걸려 있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보는 채운, 가까이 다가가려는데,

강도1 Stop there!! (거기 멈춰!!)

인질녀 살...려...주세요....

채운 걱정하지 마세요. 꼭 살아 나갈 겁니다.

강도1 We want helicopter! That's it or we all die here.

(헬기 가져와. 아니면 다 죽는다!)

채운 Okay. I know you want a helicopter and we're doing our best to get it. Look there. I have that car ready to take you to the heliporter.
(알겠어요. 지금 최선을 다해 찾고 있어요. 보세요. 헬기장까지 갈 차량도 이미 준비 시켰어요.)

강도1,2가 내다보면, 집 앞에 다빈이 가져온 봉고차 한 대가 시동을 건 채 문 앞에 서 있다. 서로 시선을 맞추는 강도1,2.

채운 It's not easy for me to get the approval though. I am not the decision maker. You know, I need something to give them.
(이거 허락 받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결정자가 아니라서요. 알다시피, 저도 뭔가 그들에게 줄 게 필요해요.)

강도1 What? (뭬?)

채운 Can you release one hostage for that? Just one. Then, it'll be much easier for me to talk to them. Maybe the woman first?
(인질 한 명만 풀어 줄 수 있나요? 한 명만요. 그럼, 제가 그들에게 얘기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여자 먼저?)

서로 쳐다보며 고민하는 강도1,2.

채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타갈로그어)
These hostages have their own beloved family.
(이 인질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순간, 강도1의 심정이 움직이며 뭔가 고민하는 표정인데,
그때, 창가에 서 있다가 현관 밖에 어른거리는 특공대의 그림자를 목격하는 강도2.

강도2 Fuck! What is that? I told you no special force!?
(씨발! 저게 뭐야? 내가 특공대 부르지 말라고 했지!?)

긴장하는 표정의 채운, 표정 관리 하며,

채운 They are not special forces. Just regular police. They are just
checking the situation inside and that's it. If you send out the
hostage, I will...
(특공대 아닙니다. 일반 경찰들입니다. 그냥 내부 상황을 확인하는 거예요.
인질 내보내주시면...)

TV를 보면 경찰 특공대라고 써진 옷을 입은 경찰들이 집 주위에 몰려 있는 것이 보인다.
경비직원을 일으켜 앞세우고 창문으로 걸어 나와 경비직원의 목에 칼을 대는 강도2.

강도2 You fucking liar!! Helicopter, first! Right here, right now!!
(개구라를 치고 있어! 당장 여기다 헬기부터 준비해!)

<지붕>

건너편 건물 지붕 위에 위치한 저격총의 조준경 안에 강도2의 모습이 들어온다.

저격병(무전) 독수리 하나. 조준 완료.

<현관문 입구>

모니터를 보고 있는 특공대장이 정팀장에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특공대장 어떡할까요?
정팀장 (고민한다) 후우...
혁수 뭘 어떡하? 무조건 기다려야재. 지금 협상 중이잖애!!

<마당>

흥분한 강도2, 경비직원의 목에 칼을 더욱 더 깊이 갖다 댄다. 공포에 질린 경비직원. 강도1
도 여자인질을 붙잡아 일으킨다. 공포에 눈물을 흘리는 여자 인질과 눈이 마주치는 채운.

여자인질 (채운을 향해) 사... 살려주세요!!!

채운 Hold on! Hold on!!! I know you very upset but...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화나신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현관문 입구>

일촉즉발의 상황, 고민하던 정팀장이 특공대장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특공대장 (무전으로 명령) 발사.
혁수 !!!!!!!!

<지붕>

조준경을 확인하는 저격병, 천천히 방아쇠를 당긴다. “탕!!”

<마당>

순간! 남자 인질이 몸부림을 치며 강도2가 뒤로 밀려나 저격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강도2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다. ‘이런 씨발!’ 화가 난 강도2가 다가가 들고 있던 칼로 남자인질의 목을 그어버린다.

남자 인질 킁!!!!!!
채운 NO!!!!!!!!!!

분수처럼 튀는 남자 인질의 피. 채운에게 다가오려던 강도2, ‘탕!’ 저격수의 사격을 머리에 맞고 쓰러진다. 동시에 집 안에 섬광탄이 터지고 현관문과 거실 유리창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든 경찰 특공대원들, 흐릿해진 채운의 시야에 인질녀를 끌고 방안으로 들어가는 강도1의 모습이 보인다. 채운이 쫓아가려는데, 머리에 피를 흘리며 다시 일어나는 강도2, 채운에게 달려든다. 순간, ‘타다당!’ 경찰특공대의 총에 맞고 그 자리에 쓰러지는 강도2. 경찰 특공대가 들어와 쫓아가려는 채운을 보호하며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

집 안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울리고 투타탕탕--! 총성이 들리더니 이내 조용해진다.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경찰 특공대원과 채운.

채운의 흐릿한 시선으로 두 손이 포박당한 채, 목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경비직원과 그 옆에 여러 발의 총을 맞고 죽어있는 복면강도2가 보인다. 특공대원을 밀어내고 일어나는 채운, 죽어있는 복면강도2를 지나, 열려있는 안방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간다. 막아서는 경찰특공대를 밀쳐버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채운.

안방 안. 서 있는 특공대원 뒤로 강도1이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져 죽어있다. 카메라, 벽을 훑어가는데... 그 벽에 가득한 피들. 채운의 시선으로 집주인 여자가 배와 목에서 피를 흘리며 벽에 기대앉아 죽어가고 있다. 급히 달려가 여자를 끌어안는 채운.

채운 (여자의 목 상처를 손으로 막으며) 정신 차려요!!! 구급! 구급!!!

뛰어 들어온 구급대원들이 급히 달려들어 응급처치를 해보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여자. 옆으

로 밀려나 지켜보고 있는 채운, 온 몸이 피투성이다. 초점을 잃은 채운의 얼굴이 그저 멍하다. 카메라 점점 빠져 나와 하늘 위에서 어둠이 내리고 있는 현장 상황을 보여주며....

협상

2. 말라카 도심, 해안 여기저기 / 낮.

// 말레이시아 말라카 반도의 항구도시 말라카의 전경이 펼쳐진다.

자막 <말레이시아 말라카>

좁은 골목 사이를 정신없이 달리는 한 남자, 큰 길 도로가로 빠져 나와 길에 세워진 말라카 인력거 ‘트라이쇼’ 위에 올라탄다. 빨리 출발하라는 남자의 말에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는 트라이쇼. 그 바퀴에서 화면 오르면... 인력거를 몰고 있는 현지인과 그 옆자리에 타서 연신 뒤를 돌아보는 남자, 병거지 모자에 가방을 메고, 카메라를 든 한국인 이상목(40대)이다.

// 도심의 혼잡한 차들의 행렬이 막아서자 인력거를 골목길로 접어들게 하는 상목. 골목길로 들어가는 인력거가 차에 타고 있는 누군가의 시선으로 흔들리며 잡힌다.

// 골목길을 가로지르는 인력거. 사원과 노점상들을 지나자 겨우 한숨을 돌리던 상목이 갑자기 어떤 예감에 주변을 훑는데... 저만치 골목 입구를 막으며 나타나는 승용차. 인력거에게 방향을 틀게 해서 다른 골목길로 접어들려는데, 역시 그 골목길 끝에서부터 달려오고 있는 다른 차량 한 대. 급기야 인력거는 삼거리 가운데 멈춰 선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인력거를 향해 달려와 멈춰서는 차량 3대. 상목과 운전사가 불안감으로 그들을 보면, 험상궂은 표정의 사내들이 차에서 내린다. 동남아 현지인과 한국인이 반반씩 섞인 얼굴들이다. 뽀뽀머리 덩치가 씹는담배를 질경질경 거리며 약력기를 손에 쥐고 다가오는데 한국인 얼굴이다. 뽀뽀이(30대) 뒤로 부하로 보이는 패거리들이 상목을 향해 조여 온다.

상목 왓츠 고잉 온?

뽀뽀이, 심드렁한 얼굴로 상목을 흘깃 보더니 카메라를 뺏어 촬영한 장면들을 재생해 본다.

상목 후아유?

한참 동안 촬영화면을 보던 뽀뽀이, 상목을 보다가 담배를 투- 뱉는다.

뽀뽀이 이상목 기자?

완벽한 한국 발음. 상목이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뽀뽀이를 본다. 팔목을 타고 흐르는 문신과 상처, 주머니에 빠져나와 보이는 권총 일부분.

상목 날... 아십니까?
뽀뽀이 (누런 이빨로 씨익 웃는) 씨바라. 아니까... 따라 왔지.

상목, 숨이 턱 막힌 얼굴로 뽀뽀이 보다가 시선 돌아가면... 저기 멈춰 서 있는 승용차 하나. 차 앞에 기대서서 손에 든 견과류 봉지 깨작거리는 사내의 실루엣. 땅콩 하나 집어 드는 남자의 소매에 살짝 빠져나온 문신에서...

3. 위기 협상팀 사무실 / 낮.

위기협상팀이라고 써진 커다란 방 안,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 자기 자리에서 머리 박고 정신없이 서류철을 보고 있던 채운 앞에 커피 한 잔 내려놓는 혁수.

혁수 그러다 아예 그 안으로 들어 가겠어. 뭘 그렇게 봐?
채운 이거 보셨어요? (혁수가 보면 '한남동 인질 사건 보고서'다)
혁수 (받아 살펴보며)
채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며칠 만에 단순 강도 결론이라니...
혁수 (채운 보다 한숨 쉬며) 당장 옷 벗는다는 애가 이걸 왜 보고 있냐.
채운
혁수 (담뱃갑 내밀며) 하나 태울래?
채운 (고개 내젓는다) ...

한숨 내쉬고 걸어 나가는 혁수의 뒷모습을 보다가 서류철을 덮어 버리는 채운,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내쉰다. 고개를 돌려 팀장실 창문 안에 있는 정팀장을 보는 채운.

4. 정팀장 사무실 / 낮.

'똑똑' 문 열고 들어가면, 전화를 받고 있던 정팀장이 급히 전화를 끊는다.

정팀장 어, 너 잘 왔다. 나 며칠 좀 나갔다 와야 될 거 같으니까...

사직서와 함께 뱃지를 내려놓는 채운. 정팀장이 보면,

채운 죄송해요.
정팀장 저번 일 때문에 그래?
채운

정팀장 (한숨) 니 탓 아니라니까, 왜 자꾸...
 채운 선배. 저 이제 그만 하려고요.
 눈앞에서 사람 죽어 나가는 거... 이제 더 못 보겠습니다.
 정팀장 니 덕에 살아 난 사람들은 왜 생각 못해?
 채운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 저랑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정팀장 (전화 올리자 확인하며)
 일단 며칠 쉬구 있어. 출장 다녀와서 다시 얘기하자.

뱃지를 채운 손에 다시 쥐어주고 어깨를 두드리는 정팀장, 전화 통화를 하며 밖으로 나간다.
 채운, 손 위에 놓인 뱃지를 보다가 시선을 돌리면, 책상 위에 정복 차림의 채운이 정팀장과 함께 찍은 경찰대학 졸업 사진이 보인다. 환하게 웃고 있는 채운과 정팀장의 얼굴에서.

5. 활주로 + 수송기 + 상공 / 새벽.

화면 서서히 밝아오면서... 여명이 밝아 오는 드넓은 활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고 있는 프로펠러 군용 수송기로 군용 화물들이 실리고 있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어깨에 총을 멘 특전사 대원들이 수송기 안으로 차례로 들어간다.

비행기 내부. 화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부팀장이 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이면 팀장 김소령이 조종석 안으로 들어간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묶는 대원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무심히 자리에 앉아 벨트를 채우는 부팀장의 얼굴에서 화면 열리면...
 햇살이 부서져 흩어지는 구름 위로 떠오르는 군용기의 모습에서...

6. 조강길 / 새벽.

어둑어둑한 도시를 달리고 있는 채운. 도심 길거리를 지나 나무들이 있는 공원을 쉬지 않고 달린다. 숨이 가빠오지만 쉬지 않고 계속 뛰는 채운,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난 듯 멈춰 선다.
 다시 뛰어 보지만 이내 절뚝거리며 결국 멈춰 선다.

의자에 앉아 있는 채운, 멀리 밝아오는 도시를 바라본다.

7. 채운 집 / 아침.

‘띠리리’ 문이 열리고 살짝 절뚝거리며 안으로 들어오는 채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다.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내 원샷하는 채운, 전화기와 이어폰을 빼어 놓고 화장실로 들어간다. 샤워기 소리와 함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한다. <시어머니> 라는 표시가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다.

커튼을 확 여는 채운, 햇살이 집 안으로 쏟아진다. 집 한 쪽에 묶어놓은 협상 관련 책들과 경

찰박이 보이고, 거실 탁자 위에 한남동 인질 사건 관련 자료들이 흐트러져 있다. TV 화면에도 역시 한남동 사건 동영상이 멈춰져 있다. 약병을 꺼내 약 두 알을 입에 털어 넣는 채운, 전화기가 울리자 확인하고 인상 쓰며 스피커로 연결한다. 탁자 위 서류들을 챙기기 시작하며,

엄마(소리) 야. 너 왜 또 전화 안 받아?
채운 바빴어.
엄마(소리) 내가 너 땀에 내 명에 못 산다, 진짜.
 저번에 소개팅 한 건 어떻게 됐어? 담주에 또 잡아 났으니까...
채운 어, 전화 온다. 엄마, 나중에 통화해~

종료 버튼을 누르는데 진짜 전화기가 울린다. 보면 <시어머니> 다.
한숨 쉬는 채운, 전화 받으며,

채운 아, 왜요?!
혁수(전화) 하 경위! 긴급이여! 긴급!
채운 (나지막이) 그러시겠조...
혁수(전화) 나 시방 가고 있는데, 기억이... 여그, 여그 맞지?
채운 어딜요....?
혁수(전화) 다 왔어야!

땡땡땡! 아파트 벨소리. 황망히 보던 채운... 이를 간다.

채운 (인상 쓰며) 아이 씨 진짜...

문으로 나가려다 탁자 위에 놓인 약병을 챙겨 서랍 속에 넣고 현관문으로 가는 채운.
현관문 열리자마자 부리나케 들어서는 혁수,

혁수 씻었냐? 잘 했다.

옷 방으로 들어가는 혁수. 옷걸이에는 검은 옷들 사이에 유일하게 컬러풀한 드레스(1씬에서 입은)가 걸려 있다.

채운 (옷장 뒤지며) 정복 어다 뒀어? 아야! 하경위! 경찰 정복, 응?!
채운 나 사표 냈다니까요. 이제 정복 입을 일 없어요.
혁수 (아무렇게나 버려진 정복을 집어 들며) 아직 수리 안됐다메.
 그리고 이건 급이 다른 거!
채운 ?
혁수 청장님이여!
채운 예?
혁수 청장님 호출이라니께!! 시방!!
채운 !!??

8. 작전 건물 주차장/ 아침.

한 외딴 건물 입구로 다가가는 혁수의 차. 정문 경비를 서고 있는 사복 경비들이 다가온다. 안쪽 건물을 보고 있는 채운. 정문 경비가 신원을 확인한 후 통과 시킨다. 어디론가 무전하는 정문 경비의 모습이 룸미러로 보인다.

혁수와 채운을 태운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정복을 입고 차에서 내리는 혁수와 채운. 주위를 둘러보는 채운의 눈에 멀리 세워진 군용 차량들이 보인다. 혁수와 채운에게 다가오는 안내남들을 보는 채운.

9. 작전 건물 복도 / 아침.

복도 곳곳에 경비를 쓰고 있는 사복 경비들도 심상찮다. 채운과 혁수... 누군가의 안내를 따라 복도 끝 방으로 향한다.

채운	여기가 도대체 어디예요?
혁수	나도 모르재. 불러주는 대로 내비찍구 왔자네.
채운	(안내에게)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안내
채운	이봐요. 내 말 안 들려요?!

문 앞에 멈춰 선 안내가 경비들에게 끄덕이면 번호를 누르고 카드로 문을 열어주는 경비들.

10. 상황지휘실 / 아침.

채운과 혁수가 문 안으로 들어서면 좁은 복도에 양쪽으로 컴퓨터 서버실이 보이고 다시 정면에 유리문이 열리면, 대형 모니터들이 보인다. 모니터 책상마다 붙어 있는 군인들과 사복 입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 상황지휘실 가운데에는 원형의 테이블과 의자, 방구석으로 빙 돌아가며 쇼파가 놓여있다.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임시 작전상황실 분위기다.

*** 정면 모니터에는 말라카해협 지도, 나카 섬 위성사진, 군용수송기 안의 상황 등이 떠있다.**

테이블에 앉아 양복 입은 사내와 머리 맞대고 얘기 중이던 남자가 채운과 혁수를 알아보고 일어난다. 무궁화 3개의 서울지방경찰청장 문청장(50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비서(40대)다.

문청장	어 왔나?
혁수	(잔뜩 긴장, 채운 옆구리 팍팍 찌르며 속닥) 서울청장님...

채운 (경례 척)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하채운!
 혁수 (과도한 경례) 서울지방경찰청 경감 안혁수!
 문청장 (공비서에게) 여기가 하채운 경웁니다.
 공비서 (다가와 채운에게 악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제기 비서관입니다.
 채운 하채운 경웁니다.
 혁수 (더 긴장하고 경례)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수사관 경감 안혁수!
 공비서 (힐끗) 아 예... (두리번) 어떻게? 누가 브리핑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과장이...” 문청장, 누굴 찾듯이 두리번거리는데... 옆방 문이 열리고 여자간부 하나가 급하게 뛰어나온다. 서울경찰청 외사과 **한과장(40대)**.

한과장 전화 왔습니다!
 문청장 벌써?
 한과장 (채운 보고) 하채운 협상관?
 채운 네.
 한과장 빨리 와요!
 채운 네?
 문청장 일단 따라 들어가!

채운, 주춤주춤 한과장을 따라 어느 방으로 향한다. 혁수, 어떻게 해야 하나 우물쭈물 채운 따라가면... 한과장, 채운만 들이고 문을 꽂! 닫는다. 혁수, 두리번두리번...
 혁수의 시선으로 헤드셋을 쓰고 상황지휘 중인 중령 계급의 **작전관(40대)**과 책상마다 바쁜 모니터 요원들, 문청장과 공비서, 대형 모니터에 떠 있는 이상한 지도와 위성사진들. 뭔가 다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혼자 정복 차림의 혁수,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11. 모니터실 - 모니터실 / 아침.

김경장과 기록 요원이 앉아 있는 관찰실을 지나 유리벽 안에 있는 모니터실 안으로 들어서는 채운, 정면에 설치된 TV 모니터를 보며 걸음을 옮긴다. 위성 영상 통화 바탕 화면이 TV에 떠 있다. 채운을 책상 의자에 앉히고 TV 뒤 쪽 관찰실로 들어가 무선 헤드셋을 쓰는 한과장. 채운 앞에 노트북과 작은 마이크가 놓여 있다.

한과장(마이크) 설명할 시간 없어요. 끊기기 전에 일단 전화부터 받으시다.
 (TV 모니터 위쪽 카메라 가리키며) 카메라 여깁어요.
 채운 (어리둥절) 네?
 한과장 (김경장에게) 연결해.

한과장이 김경장 보고 채운에게 고개 끄덕이면... 곧 영상통화 화면이 켜진다. 채운이 보면...

화면 - 누군가가 앵글이 맘에 들지 않는 듯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려본다. 잠시 후, 획획 돌아

가던 화면이 고정되고 천천히 의자로 걸어가는 남자의 뒷모습. 옷을 바로잡고 자리에 앉는 태구. 이제야 얼굴이 드러난다. 양복에 넥타이, 반짝이는 구두까지... 멋지고 젠틸한 인상이다. 소매 끝으로 보이는 문신. 2썸의 바로 그 남자다.

태구 잘 보여요?
채운 네? 네...
태구(화면) 인사가 늦었네. 민태구올시다!
채운 서울청에 하채운입니다.
태구(화면) (농담조) 에이~ 관등성명은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채운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경위 하채운 입니다.
태구(화면) 그쪽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
채운 소속 협상관 중 하납니다.
태구(화면) 이쁘다 이쁘다 그래서~
 난 또 엄청 이쁜 줄 알았는데 그 정돈 아니네...
채운 (만만치 않다 이눔) ...
태구(화면) 혹시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채운 ?
태구(화면) 거 있잖아 왜. 미스코리아들 사이즈 짝 나오는 거. 가슴, 허리, 엉....

‘딱’ 갑자기 화면이 꺼져 버린다. 놀라는 한과장이 보면, 앞에 놓은 타블렛 패드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채운. 채운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라는 한과장과 김경장.

공비서(마이크)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저쪽에서 켜어?
채운 (공비서 보며) 제가 종료 했습니다.
공비서(마이크) 뭐?! 지금 뭐하는 겁니까?!!!
문청장(마이크) 하경위. 왜 그래?!
채운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는 다시 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제가 대처를 하죠.
김경장(마이크) 다시 전화 들어옵니다!
문청장(마이크) 일단 전화부터 받아. 설명은 나중에 해 줄 테니까.
채운 (한과장에게) 받지 마세요. 끌려 다니면 협상 안 됩니다.
공비서(마이크) 나중에 얘기 해준다잖아! 일단 전화 받으라니까!!

전화가 울리는 가운데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채운을 노려보는 공비서를 냉정한 눈빛으로 마주 보는 채운. 어쩔 줄 몰라 하는 한과장. 채운, 잠깐 문청장을 보다가 통화 버튼을 누른다.

채운 (태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여기 상황 정리 좀 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다시 종료 버튼을 누르는 채운.

한과장 !!!!!!!

채운,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일어서 밖으로 나간다. 황당한 표정의 한과장과 김경장.

12. 상황 지휘실 / 아침.

화가 난 공비서에게 걸어가는 채운.

채운	상황 설명부터 해주세요.
상황요원1	전화 다시 오는 데요...
공비서	(한숨 쉬고 문청장 보면)...
문청장(마이크)	한과장. 일단 한과장이 받아.
한과장	네? 제가요?
문청장	어서!!

13. 모니터실 / 아침.

떨리는 표정으로 채운 대신 협상 의자에 앉은 한과장, 김경장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 전화가 연결된다.

14. 상황 지휘실 / 아침.

상황실 모니터에 태구의 화면이 떠오른다, 무심하게 화면을 보고 있던 태구.

한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경찰청 외사과 한영숙...

태구, 손으로 카메라를 숙 돌리면, 얼굴에 보자기를 뒤집어 쓴 남자가 하나 앉아 있다. 모두 의아하게 화면을 쳐다보고... 다시 화면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태구가 앉아 있는 남자의 보자기를 벗겨 머리를 잡고 들어 올리면 얼굴이 보이는데.... 채운의 사수 정팀장이다!!

채운 !!!!!!!!!!!!

깜짝 놀라는 채운과 혁수. 채운이 문청장을 보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의 문청장.
화면 - 정팀장 옆에 의자를 가져와 앉는 태구, 빙그레 미소 짓는다.

태구(화면) (화면 밖 누군가를 향해) 야. 것 좀 갖구 와봐.

화면 - 누군가의 손이 화면 안으로 들어와 태구 앞에 글록 권총을 하나 내놓는다.

채운의 얼굴이 순간 경직된다. 지켜보던 관계자들의 긴장된 얼굴들 스케치.

태구(화면) 아이 씨. 이거 말고, 38 새까, 38!

화면 - 누군가의 손이 글록을 가져가고 다시 탄창이 회전하는 38구경 권총을 내놓는다.
그냥 나가려는 누군가에게,

태구(화면) 인사드리고~!

화면 - 화면 안으로 속- 들어오는 얼굴... 꾸벅 인사하는 뽀빠이.

태구(화면) 브이 한번 하고~

뽀빠이(화면) (손가락 두 개) 브이~~

채운, 혼란과 긴장 속에 굳어진 얼굴이 펴지지 않는다.

화면 - 탁자위에 총알 하나를 집어 드는 태구, 무심한 표정으로 탄창에 집어넣고
휘리릭! 돌린다.

긴장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실 사람들과 채운.

화면 - 갑자기 정팀장의 이마에 총을 겨누고 다른 손으로 피가 튀지 않도록 얼굴을 슬쩍 가
리더니 방아쇠를 당긴다. 깜짝 놀라는 채운의 표정.

채운 !!!

화면 - 톱! 하는 소리와 함께 빈총이다.

태구(화면) 정팀장님 오늘 운빨 좋으시네.

태구를 노려보는 채운, 모니터실로 급히 들어간다.

15. 모니터실 / 아침.

모니터실로 들어와 한과장 대신 모니터 앞에 다시 앉는 채운, 처음과는 다른 표정이다.

태구(화면) (채운 보고) 어, 다시 오셨네. (미소)

화면 - 천장을 향해 톱톡! 방아쇠를 당기는 태구.

태구(화면) 뭐야 씨바. 고장났나...

화면 - 어느 순간 타앙-! 격발되는 총.

채운 !!

<인서트 - 상황실>

상황실에 총소리가 떠돈다. 지켜보는 관계자들과 혁수, 기가 막힌 얼굴로 보고 있다.

정팀장은 눈을 감은 채 떨고 있다. 천정에서 떨어진 시멘트 가루들을 털어내는 태구.

태구(화면) 어디 갔다 왔어요? 아무리 바빠도 통화 중에 그렇게 먼저 끊어 버리는 건 예의가 아니지.

채운 죄송해요. 그런데 그 예의 그 쪽도 좀 지켜주시면 안될까요?
예의는 서로 지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채운, 태구 본다. 한과장, 긴장한 채 채운 본다.

<인서트 - 상황지휘실>

혁수와 문청장, 공비서 등등도 모니터에 뜬 태구와 채운의 통화 장면 보고 있다.

태구(화면) 지금 그런 말 할 상황 아니지 않나? (다시 총알 하나 집으며)

채운 (태구의 손을 슬쩍 보고) 백육십칠에 삼십사, 이십사, 삼십오.

태구(화면) ?

채운 궁금해 하시길래.

태구(화면) 아, 맞다, 사이즈!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채운 소개팅 잡히고 일주일 야식 끊으면요.

태구(화면) 이야~ 정팀장님! 나 저 친구 맘에 드는데?
다 때려치고 그냥 채운씨랑 소개팅이나 하까?

정팀장(화면)

채운 전 언제든 환영입니다. 뭐든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태구(화면) 원하시는 건 찬찬히 듣고. 그 전에! 채운 씨.

채운 네.

태구(화면) 우리 서로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

채운 그럼요.

태구(화면) 한 점 거짓 없이. 응?

채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 거기 다른 사람이 또 있나요?

태구(화면) (질문 무시하고 총알을 다시 탄창에 넣으며)

내 말의 요지는...서로 솔직하게... 한 치의 거짓 없이...

채운 (총알 넣은 것을 보고 긴장)

태구(화면) (탄창 휘리릭 돌리는) 채운 씨? 어, 하 경위? 뭐야, 이거 끊겼나?

채운 듣고 있습니다.

태구(화면) 에이~ 쫓았어요?

채운 서로 솔직하게 얘기 나누려면, 그 총부터 치우면 어때요?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는 진실된 대화 나누기 힘들 것 같은데. (미소)

<인서트 - 상황지휘실>

긴장하며 서로 눈짓 오가는 관계자들.

태구(화면) 안 나누면? 정 팀장 그냥 포기하겠다고?
채운 포기 안 할 기회를 그쪽이 주세요 저한테.
태구(화면) 포기 안 할 기회를 달라... 거, 말이 참 맛깔나네~
채운
태구(화면) 그럼, 지금 우리 대화 누구누구 보고 있는지 말해 봐요.
채운 그 총 치우면 얘기 해 드릴게요. (태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본다)
태구(화면) 듣던 대로 기본기가 탄탄하네~

채운을 보던 태구가 총을 든 손을 뺄려면 뽀뽀이가 와서 총을 가져간다.
빈손을 들어 보이는 태구,

채운 경찰청 외사과 한경숙 과장님.
한과장
태구(화면) 좀 전에 그 아줌마. 또?
채운 서울지방경찰청 문종혁 청장님.

<인서트 - 상황지휘실>

문청장... 공비서와 시선 오간다.

태구(화면) 또?
채운 그리고 화면 모니터링 하는 수사 요원들, 내가 모르는 담당 부원들...
태구(화면) 또 없어? 더 높은 사람?

<인서트 - 상황지휘실>

공비서, 긴장한 채 모니터 본다.

채운 청장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어요. 청장님이 현 상황 지휘관이십니다.
태구(화면) (한숨) 채운 씨. 나 좀 똑바로 봐요~

채운이 카메라 응시한다.

태구(화면) 우리가 친하게 지내려면, 거짓말하고 그럼 안 돼요. 알죠?
채운 (시선피하지 않는다) 그럼요. 당연하죠.
태구(화면) (채운을 가만 보다가) 좋아. 채운씨 한번 믿어 볼게요~
채운 거기 혹시 다른 사람이 더 있나요?

태구(화면) (채운의 말 무시하고 프레임 밖으로 시선) 밥 다 됐냐?
 채운
 태구(화면) 채운씨.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인사는 요만큼만 하고 좀 있다 또 밥시다.
 채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주시면 좋은데.
 태구(화면) 에이, 참- 그건 지금 채운 씨가 감당 못 해~
 채운 ?
 태구(화면) 아참! 정팀장이랑 인사 안했죠?

화면 - 태구가 보면, 정팀장의 안대와 재갈을 풀어주는 뽀뽀이. 얼굴이 많이 상한 정팀장.

채운 (표정관리 하며 담담히) 팀장님, 괜찮으세요?!
 정팀장(화면) 어. 아무것도 모르고 왔지?
 채운 네.
 정팀장(화면) 하 경위가 지금부터 이 상황 카바링 해야 돼.
 성질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알지?
 채운 걱정 마요, 선배. 꼭 무사히 돌아올 거예요.
 정팀장(화면) 그래...
 태구(화면) 오케이!!! 여기 까지!
 채운 (끌려 나가는 정팀장을 보며)
 태구(화면) (채운 향해) 진실 되게! 그거 잊지 말고 밥 먹고 다시 봐요.

화면 정지되며 통화 끝난다. 혼란스러운 표정의 채운의 얼굴에서...

16. 여자 화장실 / 아침.

여자 공중 화장실 앞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혁수.
 화장실 안. 거울 앞을 불안한 듯 서성이다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는 채운, 털어보면 약이 다 떨어졌다. 한숨 내쉬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여자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온다. 문을 열고 변기 칸으로 들어가는 채운.
 변기 덮개를 내리고 자리에 앉는 채운, 그 위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쥔다. 혼란스러운 표정의 채운,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한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며,

17. 회의실 / 아침.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채운의 얼굴에서.
 회의실에 모여 앉은 관계자들 사이, 채운을 보고 있던 한과장이 입을 연다.

한과장 혹시 대한일보 이상목 기자 납치 사건, 들어봤어요?
 채운 아뇨.

모니터 화면에 뜨는 상목의 얼굴.

한과장 이상목 기자는 요즘 동남아에서 기승을 부리는 한인 상대 범죄
 취재 갔다가 일주일 전에 납치됐어요. 그 납치범 두목이 민태구.

민태구 사진 떠오른다. 한과장이 얘기하는 동안, 화면에 태구의 얼굴과 조직도, 나카섬 아지트의 모습, 태구의 각종 사진 등이 중간 중간 이어서 떠오른다.

한과장 쿠알라룸푸르와 방콕에 거점을 두고 온갖 음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일종의 국제적인 조폭두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채운

한과장 동남아 한인 범죄조직 중에는 가장 크고 악랄한 조직이라
 우리 외사과 블랙리스트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조직이에요.

채운

한과장 3일 전에 대한일보 직원 몇 명하고, 경찰에서는 정준구 팀장이 인질 협상팀
 장 맡고 비밀리에 방콕으로 갔어요. 방콕으로 오라 했거든요, 민태구가.

<인서트 - 화면>

자동차 블랙 박스 화면. 방콕 변두리 길을 가고 있던 차 앞으로 총을 든 괴한이 나타나 차를
세운다. 사방에서 무장 괴한들이 나와 정팀장을 끌고 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다.

한과장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는 길에 정 팀장이 납치됐어요.
 협상은 아예 관심도 없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러고 바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한과장, 손짓하면... 김경장이 모니터에 위성통화 영상을 띄운다.

<인서트 - 화면>

태구가 책상 앞에 앉아, 두건을 씌우고 무릎 꿇린 두 명의 사내 옆에 끼고 영상통화중이다.

태구(화면) 민태구올시다!

멀거니 두건 사내들 보다가 와락 두건을 벗기는 태구.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목과 겁에 질린 정팀장의 얼굴.

태구(화면) 자! 이제 내 카드가 두 장이 됐습니다~ 기자 하나, 경찰 하나.
 내가 이 카드를 가지고 뭘 해야 할까? 고민이 좀 되는데...
 일단 그쪽도 고민 좀 해보시고...

한과장 손짓으로 화면 멈추고.

한과장 그리고 다시 3일 지난 오늘 새벽에 갑자기 린치당한 정 팀장 얼굴 보여주면서 하채운 경위 불러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정팀장이 요청했다면서...

채운

한과장 이 납치 사건 아직 언론은 몰라요. 대한일보에 우리가 엠바고 부탁했고... (공비서 보며) 청와대에서 이 사건에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고.

공비서 불편하다기보다 재외국민들의 안전보장... 게다가 현직경찰을 납치한 사안이 워낙 무겁지 않습니까?

채운

공비서 사실 지금 군경합동작전으로 공군 특수부대 파견됐어요. 특전사 SART.

채운의 시선이 작전관에게 멈춘다. 공비서가 작전관 보면, 모니터로 시선 돌리는 작전관.

<인서트 - 화면>

모니터에 떠 있는 말라카 해협과 공해 상의 나카 섬 위성사진.

*** 나카 섬 : 말라카 해협 공해 상 어딘가에 있는, 가공의 섬.**

작전관 (자료화면과 함께) 여긴 말라카 해협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해적들 출몰이 빈번한 지역이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삼국의 통제가 느슨한 지역입니다. 사실 나카섬은 경계 레이더 시설은 물론 미사일까지 갖춘 천연 요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태구 일당도 이 섬에 인질들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비서 공식적으론 태국 국경 안이라 태국 정부의 협조 아래 비밀 인질구출 군사작전 시행될 겁니다.

채운, 모니터에 떠 있는 위성사진과 말라카 해협 지도 등을 본다.

문청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벌면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두 사람 구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채운 (작전관에게) 시간을 얼마나 끌어야 돼요?

작전관 작전 예상 시간은 현지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6시!!

문청장 보자, 그러면. 지금이 아홉시니까 넉넉잡고 21시간 걸리네.

공비서 이거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관심이 크십니다.

 정규편제 특수부대 해외 작전인데다, 태국 국방부 외교부 협조 따야지, 미군 경찰기 서포트 받아야지, 보통 애먹은 게 아닙니다.

혁수 (느닷없이 파이팅) 할 수 있다! 하채운!

모두가 멍~ 황망히 혁수 보면... 뺄뚱해지면서 엉거주춤 손 내리는 혁수.

채운 만약 그 시간 안에 협상 성공하면 작전은 취소되는 건가요?

문청장 어? 뭐 그럴겠지...(공비서 보며)

공비서 그 전에 협상되면 당연히 작전은 취소됩니다.
문청장 어때? 할 수 있겠어?
채운 (한동안 보다가) 저희 팀원들 불러 주세요.

채운을 보는 사람들과 한과장.

채운의 시선이 상황실 모니터로 돌아가면, 화면 하나에 수송기 내부의 CCTV 화면이 보인다.

18. 수송기 안 / 아침.

CCTV 화면이 실사로 변환되며, 붉은 비상등 아래, 프로펠러 소리 요란한 가운데 위장 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있는 그들의 면면을 훑어 나간다. 무심히 초코바를 씹어 먹고 있는 부팀장이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면, 군용수송기의 프로펠러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인다. 구름 위로 멀어져 가는 군용수송기.

19. 회의실 / 아침.

혁수가 커피 세 잔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온다. 민태구 관련 자료들이 펼쳐져 있는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는 채운과 한과장, 김경장, 앞에 커피 놓는 혁수. 자료 파일을 보고 있는 채운

채운 민태구... 외국 국적이네요.
혁수 앵? (파일 들여다보며) 가가?
김경장 네. 재작년에 영국 국적 취득했어요. 영국 이름은 리차드 민.
한과장 투자이민 형식으로 영국 국적 취득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혁수 글치~ 요즘 조폭들이 워낙 똑똑한게. 옛날거치 주먹질에 사시미질 하는 아들은 잘 읊고 다들 석박사에 금융이다 뭐다..
채운 가족 사항도 다 공란이네요.
한과장 고아라서 그래요.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외국 떠돌아다녀서 국내 자료도 거의 없어요.
채운 다른 멤버들은요?
김경장 다 외국 돌면서 만난 재외동포들 같은데, 한국계란 거 말고는 정보가 없습니다.
채운 인질 상황인 거 같긴 한데..
혁수 그지? 비인질 상황은 아니지?
한과장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혁수 아. 이거시 인질을 이용해서 돈이든 뭐든 원하는 목적이 따로 있으면 인질 상황이고, 강 지 감정 화풀이 하는 건 비인질 상황이고.
한과장 아....

‘똑똑똑’ 기록요원이 다급하게 유리창을 두드린다. 보면, 전화가 들어 왔다는 신호다. 일어서

는 채운, 정복 외투를 벗고 넥타이를 풀며 밖으로 나간다. 의아해하는 한과장에게,

혁수 원래 인질범이랑 협상할 때는 경찰복 입는 거...

한과장, 혁수를 그냥 지나쳐서 모니터실로 급히 쫓아간다.

혁수 ...아니거든요.

회의실에 또 홀로 남겨진 혁수.

20. 모니터실 / 아침.

화면 - 뻥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태구. 외투를 벗고 정팀장 없이 혼자 앉아있다.
무심한 얼굴로 TV 화면 속의 태구 보고 있는 채운.

채운 식사는 잘 하셨나요?

태구(화면) 덕분에.

채운 근데 정 팀장님이 안보이네요.

태구(화면) (무시) 채운씨 어떤 스타일 남자 좋아해요?

채운 (태구를 뻥히 바라본다) ...

태구(화면) 뭐 있잖아요. 능력, 외모, 성격...

채운 솔직한 사람이요. 태구씨처럼?

태구(화면) 나? 내가 솔직해? 그걸 어떻게 알지?

채운 어릴 때부터 신끼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태구(화면) (피식) 그럼 이번 협상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채운 해피엔딩이요. 민태구씨 어리석은 사람 아니니까.

태구(화면) 해피엔딩.....난 아닐 것 같은데. (미소)

채운 전 그럴 것 같은데요. (미소)

태구(화면) (채운 보다가) 참,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 줄 수 있나?

채운 그 전에, 정팀장님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제가 맘이라도 놓게.

태구(화면) 그래 뭐~ 밥 다 먹었으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화면 - 뻥뻥이가 정팀장을 데려와 카메라 앞에 앉힌다.

화면 - 두 손이 케이블타이로 묶인 정팀장, 옷이 찢어져 옷통이 벗겨진 모습이고...

상처 곳곳에서 피가 흐르고, 훨씬 많은 고문이 가해진 충격적인 모습이다.

채운 !!!!!

<인서트 - 상황지휘실>

쏟아질 듯이 보고 있는 혁수, 한과장과 상황실의 관계자들.

정팀장, 안대와 재갈을 풀자 어딘가 눈동자가 풀리고 초점 없는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한다.

채운 정 팀장님! 괜찮으세요?
정팀장(화면) 아... 하 경위...
태구(화면) 아~ 새끼들... 얼마나 났냐?
뽀뽀이(화면) 50 미리 졌습니다.

화면- 표정 없이 정팀장을 보던 태구.

태구(화면) 그렇게 주면 치사량이라고... 내가 얘기 안 했나...

화면- 차가운 눈빛으로 뽀뽀이를 돌아보는 태구, 눈빛에 순간 살기가 돈다.

뽀뽀이(화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섬뜩하게 돌변한 태구의 모습을 유심히 보는 채운.
심호흡을 깊게 하는 태구,

태구(화면) 정 팀장이 좀 힘들어 하길래 약 좀 주라구 했거든?
 근데 애들이 조금 더 났나봐. 금방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말고~
 (정팀장 볼을 세게 툭툭 때리는) 정 팀장님~ 정 팀장~ 정 팀장!
정팀장(화면) (피하는) 예예...
채운 (떠나갈 듯) 민태구씨!!

화면 - 움찔 손길 멈추며 채운을 쳐다보는 태구.

<인서트 - 상황지휘실>

역시 놀라는 관계자들.

채운 때리지... 마세요.
태구(화면) (빠히 보다가) 뭐야? 둘이 사귀어? 그런 사이였어?
채운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제가 민태구씨 상대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태구(화면) 무슨 공간?
채운 (자기 가슴 가리키며) 여기... 이곳이 닫힙니다.
 저는 당신이 원하는 거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예요.
태구(화면) 내가 뭘 원하는지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채운 그러니까 말씀 해 주세요. 민태구씨가 원하는 거.

화면 - 태구, 한동안 채운 쳐다보다가...

채운 그래야 제가...

태구(화면) (채운 말을 끊으며 대뜸) 대한일보 윤동훈 사장!

채운 ??

태구(화면) 한 시간 준다.

채운 이상목 기자 생사 확인이 먼저예요!

태구(화면) 에이~ 참부터 이렇게 덜치고 들어오면 안 되지~

채운 사람 불러 오는 거 제 권한 아니에요.

 저도 윗사람들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태구(화면) 한 시간 이야. (통화 끊으려는 손동작)

채운 두 시간! 어딴지도 모르고 지금 서울 교통상황에 어림도 없어요.

태구(화면) 한 시간 반. 헬기라도 띄워.

화면 정지되며 통화 끝난다.

김경장 저쪽에서 끊었습니다.

채운, 긴 한숨을 내쉰다. 한과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툭툭- 채운의 어깨를 토닥이고 나간다.

21. 상황실 + 관찰실 / 낮.

카메라, 한과장과 김경장을 따라 상황실로 나오면, 문청장이 요원들에게 지시하며 바쁘다.

문청장 윤동훈 사장 소재 파악됐어?

경찰요원1 (전화기 든 채) 대전에 내려가 있습니다.

문청장 대전? 이거 진짜 헬기 있어야겠는데?

공비서 대전경찰청 헬기 지원 요청하세요.

문청장 대전 청장 연결해봐.

경찰요원2 네!

상황실에 서 있던 혁수, 관찰실에 있는 채운을 보고 관찰실로 들어간다.

카메라 다시 혁수를 따라 관찰실로 들어오면, 채운은 모니터 앞에 혼자 앉아서 방금전 태구와의 대화 화면을 다시 보고 있다.

혁수 괜찮아? 경찰밥 이십 년에 나두 저런 놈은 참이여.

채운 뭐 거 같애요?

혁수 뭐가?

채운 민태구 원하는 거...

혁수 돈 아녀?

채운 (빠히 보면)

혁수 아녀? 그럼, 복수 같은 거여? 그럼 복잡해지는데 이거...

(채운 눈치보고) 그나저나 잘 할 수 있겠냐?
 채운 모르겠어요. 읽지를 못하겠어.
 반사회적 성격장애 쪽인가 했더니... 망상형 정신분열에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채운을 바라보는 혁수.

김경장 저게 무슨 소리예요?
 혁수 내도 몰라.

22. 골프장 / 낮.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퍼팅 그라운드에서 퍼팅하고 있는 차분한 인상의 대한일보 사장 **윤사장(50대)**. ‘어어...’ 퍼팅한 볼이 홀 안에 빨려 들어가려는 순간, 바람에 날려 멀리 굴러가 버린다. 요란한 소리에 고개 들면... “타타타타!” 대전경찰청 헬기가 페어웨이에 내리고 있다. 모두 놀란 눈으로 보는데... 윤사장, 의아한 시선으로 헬기를 바라본다.

23. 상황지휘실 / 낮.

문이 열리고 김경장 안내로 들어서는 50대의 윤사장을 공비서, 한과장, 문청장 등이 돌아본다. 관찰실에서 윤사장을 보는 채운, 혁수와 함께 상황 지휘실로 들어온다.

문청장 윤동훈 사장님?
 윤사장 네.
 문청장 서울경찰청장 문종혁입니다. 오시면서 대충 상황은 들으셨죠?
 윤사장 네.
 문청장 (채운 가리키며) 지시 잘 따르시면서 편히 통화하시면 됩니다.
 채운 (악수) 위기협상팀 하채운입니다.
 윤사장 (악수) 대한일보 윤동훈입니다.
 채운 저희가 무전으로 서포트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윤사장 네. (움직이려 하면)
 채운 근데 저기, 옷을 좀... 갈아입을 수 있을까요?

모두, 윤사장의 복장 보는데... 총 천연색 골프복이다.

24. 상황지휘실 + 모니터실 / 낮.

상황지휘실 한 쪽 구석에 커다란 골프 셔츠를 입고 있는 사복 경비원의 모습.

모니터실에 앉아 몸에 끼는 와이셔츠와 외투를 입은 윤사장, 뭔가 어색해 보인다.

채운 아무래도 자켓은 벗는 게 좋겠어요. 와이셔츠만 입죠.

윤사장이 상의를 벗으면, 한과장이 받아 챙긴다. 윤사장에게 이어폰을 끼워주며,

채운 조금 충격적인 장면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 지시대로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혹시 대답하기 힘드시면 저를 보세요.

윤사장 네.

김경장 연결 들어왔습니다!

채운이 관찰실로 들어가 한과장 옆에 서서 헤드셋을 쓴다.

화면 - 태구 혼자 앉아 있다.

윤사장, 침착하려 하나 경직된 자세로 곳곳이 허리 세운다.

태구(화면) 윤동훈 사장님?

윤사장 네, 윤동훈입니다.

태구(화면) 사진보다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윤사장 ...

태구(화면) 긴장하셨나?

채운(무전) 감사한다고 하세요.

윤사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태구(화면) 감사는 무슨. (프레임 밖에 대고)

 야! 기자님 오시라고 해라. 아니다. 둘 다 모셔와!

화면 - 화면 안에 들어와 앉혀지는 정팀장과 상목.

화면 - 이상목의 안대와 재갈을 벗기는 뽁뽁이. 이상목의 머리는 산발에다 입술은 터지고 눈가는 찢어져 있다.

긴장한 기색이 번지는 윤사장의 얼굴. 관찰실 모니터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채운.

채운(무전) 이기자 안부부터 물어봐 주세요.

윤사장 이, 이 기자. 괜찮아?

상목 네, 괜찮습니다.

윤사장 힘내고. 다 잘 될 거야

상목 감사합니다, 사장님.

태구(화면) 분위기가 참 좋네. 근데 저기 윤 사장님!

 대한일보에 이상목 기자 실종 기사가 없던데...

윤사장 경찰 쪽에서 엠바고 요청이 있어서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채운(화면) 이상목 기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하세요.
 윤사장 ...우리로서는 특종보다 이상목 기자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태구(화면) 아 그렇죠. 당연합니다. 근데 두 분 친하세요?
 윤사장 네....뭐... 입사 때부터 가끔 보고...
 태구(화면) 술도 한잔씩 하고?
 윤사장 네, 뭐...
 태구(화면) (빡빡이한테 건네 받은 전자패드 보며) 이상목 기자 언제 입사했죠?

전자패드를 받아드는 민태구 손등에 빠져나온 문신이 빡빡이의 팔에 그려져 있는 문신과 똑같은 문양임을 보는 채운.

윤사장 2013년 4월 20일 입사했습니다. 그 전에 인터넷매체 근무했고.
 태구(화면) (전자패드 들여다보다 힐끗) 직원들 입사 날짜까지 외우십니까?
 윤사장 아... 이번 사건 때문에 인사자료 좀 보고 있었습니다.
 태구(화면) 이상목 기자 대표 특종이 뭐죠?
 윤사장 2014년 6월 군복무기간이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특종기사...
 아, 그리고 2015년 9월 제주 어린이집 일가족 사망사건 특종이 있습니다.

대화를 유심히 듣고 있던 채운, 뭔가 이상한 듯 고개를 가웃한다.

태구(화면) 이야~ 진짜 머리 좋으시네... 그걸 다 외우고 계세요?
 윤사장 이것도 이번 사건 때문에 이 기자 파일들 다시 검토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태구(화면) 검토 수준이 아니라 그냥 찰찰 다 외웠는데?
 누가 보면 물어볼 줄 알고 미리 준비한 줄 알겠어요.

윤사장, 책상 아래 숨긴 두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 그 장면을 목격하는 채운, 헤드셋을 벗고 모니터실 안으로 들어간다.

채운 저기, 태구씨. 지금 윤사장님 너무 긴장하신 거 같은데~
 제가 옆에 앉아 있어도 될까요?
 태구(화면) 편하게 하세요.
 채운 (자리에 앉으며) 민태구 씨. 윤사장님께 직접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거 아니셨어요?
 태구(화면) 나...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채운죄송합니다.
 태구(화면) 나 윤사장님이랑 둘이 얘기 나눌 테니까,
 끼어들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오케이?
 채운 ... 네.
 태구(화면) (한숨) 이상목 기자 가족사항이 어떻게 되죠?
 윤사장 아내와 초등학교 딸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구(화면) (상목 등 툭툭) 좋은 사장 됐어요, 이 기자님. 진짜 모르시는 게 없네~

상목
태구(화면) 아, 이기자 주량은?
윤사장 주량은... (갑자기 말문 막히는) 주량이...

화면 - 빨리 카메라 응시하고 있는 태구.

긴장한 윤사장의 관자놀이에 흘러내리는 식은땀. 채운이 다시 윤사장의 긴장을 읽는다.

태구(화면) 못 들으셨나? 이상목 기자 주량이 어떻게 됩니까?
윤사장 잘... 모릅니다.
태구(화면) (과장) 주량을 몰라요?
윤사장 제가 술을 잘 못해서...
태구(화면) 아까는 같이 마셨다며? 술은 같이 마셨지만 주량은 모른다?
윤사장 네. 제가 늘 일찍 나와서...

화면 - 채운과 윤사장을 가만히 쳐다보던 태구, 별떡 일어나더니 프레임 밖으로 걸어갔다가 38구경 권총을 잡고 다시 나타난다.

<인서트 - 상황지휘실>

긴장하는 표정의 한과장과 상황 지휘실의 사람들...

태구(화면) 후.... 좋아요! 자! 윤 사장님 한번 일어나보세요.
채운 !!!
윤사장 네?
태구(화면) 일어나 보라고~~

엉거주춤 일어서는 윤사장.

태구(화면) 옆으로 나와 봐요. 폴 샷 보이게.

윤사장, 엉거주춤 책상 옆에 나와 선다. 윤사장... 위는 와이셔츠 차림, 하의는 골프바지와 골프신발 그대로다. 한과장, 당혹스런 얼굴이 된다.

태구(화면) 뭘니까? 그 패션 센스는?
윤사장 아 이게...(채운 보면)
채운 골프장에서 급히 모셔오느라..
태구(화면) 소속 기자가 납치돼서 인질 협상이 오가는 판에 골프를 치러갔다...
채운
윤사장 서, 선약이 되 있던 거라... 죄송합니다..
태구(화면) (말을 끊으며 대뜸) 이상목이... 당신네 기자 아니지?

윤사장, 굳는다. 한과장, 굳는다.

화면 - 화면 구석, 고개 떨구고 있는 상목.

채운, 천천히 윤사장 돌아본다.

<인서트 - 상황지휘실>

긴장한 채 보는 관계자들. 문청장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윤사장 네? 그게 무슨...?

태구(화면) 솔직하게 말해! 거짓말하면 당신 인생 피곤해져!
(전자패드 보며) 와이프 백희경! 미국 유학중인 첫째 딸 윤주리!
고대 16학번 둘째딸 윤주승!

윤사장 !!!

윤사장, 멘붕 온 얼굴로 입술 떨리는데...

화면 - TV 화면 안으로 속- 들어오는 인서트 창. 문청장이 개입한다. 삼자 통화다.

문청장(화면) 민태구 씨. 서울지방경찰청 문종혁 청장입니다.

놀라는 채운이 상황지휘실의 문청장을 보며 끼지 말라며 고개를 내젓는다.

태구(화면) 일단 청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문청장(화면) 민태구 씨. 제가 이번 협상 총책임잡니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도대체 요구사항이 뭘니까?

태구(화면) (한숨) 당신은 내가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오면 돼.

문청장을 보며 끼어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채운.

문청장(화면) 민태구 씨. 우리 모든 조건을 다 열어놓고 얘기 나눌 준비가...

태구(화면) (말 끊으며) 아, 씨발! 끼어들지 말라고!!!
지금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잖아! 안 보여?!!!
내가 몇 번을 말해!! 내 말이 좇도 우습냐, 씨발놈아!!

<인서트 - 상황 지휘실>

모두가 패닉에 빠진다.

태구(화면) (한숨 내쉬며) 아 미안해요. 내가 흥분하면 입이 거칠어져서...
이게 잘 안 고쳐지네.

채운 ...

태구(화면) 저기... 윤사장님?

윤사장 (겁에 질려) 예, 예?!

태구(화면) 이상목 기자 대한일보 기자 아니죠? 그죠?

채운 (윤사장 바라본다) ...
 태구(화면) (척! 상목 머리에 총 겨누며)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묻습니다.
 이상목. 당신네 기자 맞아 아니야?
 윤사장 !!
 채운 민태구 씨!
 문청장(화면) 민태구 씨! 제발 총 치우세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태구(화면) (윤동훈 노려보며) 지금 당장 당신 마누라 두 딸래미! 여기 앉혀봐!?
 채운 민태구 씨!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태구(화면) 윤동훈!!
 윤사장 (긴장과 흥분)
 문청장(화면) 한 과장! 윤 사장님 밖으로 빼!
 태구(화면) (이상목 머리에 총구) 대답해, 윤동훈!!!!
 문청장(화면) 어서 빼라고!

한과장, 급히 들어와 윤사장 끌고 나가는데...

화면 - 태구, 가차 없이 상목 머리 바로 옆에서 타앙--! 총격.

<인서트 - 상황실>

“으악!!!”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모두가 움찔.

화면 - 다시 상목 머리에 총구 들이대는 태구.

태구(화면) 3초 안에 대답 안 나오면... 이 새끼 머리통 날아간다.
 하나! 둘! 세...
 윤사장 (부들부들... 이윽고) 아닙니다...
 채운 !!??

<인서트 - 상황지휘실>

한숨 쉬는 문청장.

문청장 어서 빼...

한과장이 윤사장 데리고 나간다. 채운 멍하니 그 윤사장 뒤끝 보는데...

태구(화면) 채운씨.
 채운 네...
 태구(화면) 우리 서로 구라치지 말자고 했죠?
 채운 전 몰랐습니다.
 태구(화면) 눈치는 봤죠? 나도 봤는데...
 채운 아뇨. 전 정말 몰랐어요.

태구(화면) 닥쳐, 씨발! 내가 구라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응?
 (느닷없이 권총을 들고)
 서로 진실하자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
채운 (일어서며) 민태구씨.

화면 - 태구, 고개를 숙이고 한숨 내쉬더니 갑자기 총구를 정팀장 머리에 대고,
타앙!!!!!! 총소리와 함께 정팀장의 머리통이 터져나가며 옆으로 쓰러진다.

채운 !!!!!!!

<인서트 - 상황실/상황지휘실>

채운, 문청장, 한과장, 윤사장, 혁수, 작전관, 모니터 요원들 모두 패닉에 빠진 모습.

채운, 일어난 채 책상을 짚고 그저 멍하니 화면을 응시한다. 귀에서 계속 굉음이 울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채운, 책상을 짚고 있는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린다.

화면 - 태구, 얼굴과 옷에 튼 피를 닦아낸다.

화면 - 부하들이 시체 끌고 간다.

화면 - 상목, 피를 뒤집어쓴 채 고개 돌리고 떨군 채 꼼짝하지 않는다.

채운, 여전히 멍하니 화면 바라보고 있다.

태구(화면) (피 닦으며) 아이~ 씨... 다 묻었네...
채운 (눈물이 차오른다. 혼잣말) 미친.....
태구(화면) 뭐라구? 잘 안 들려요~ 크게 말해봐요.
채운 야, 이 미친 새끼야!! 이 개새끼야!!!!!!
태구(화면) 아... 이거 같이 막 욕하고 이럼 안 되는데...
문청장(화면) 끊어! 일단 끊어!

화면 정지되며 통화 끝난다. 한과장과 혁수가 모니터실로 뛰어 들어온다. 눈을 부릅뜨고 화면 노려보며 떨리는 채운. 녀가 나가있다.
문청장이 안으로 들어선다. 그 부르르 떨리는 얼굴에서 떨어지는 채운의 눈물. 문청장, 착잡한 시선으로 채운의 눈물을 본다.

25. 수송기 / 낮.

비상벨이 울리고... 수송기 하사관이 조종실에서 나와 김소령에게 수신호를 하고 들어간다.

김소령(무전) 착륙 30분 전. 개인 장비 최종 확인.

대원들이 일어나 장비가 있는 곳으로 걸어간다.

걸어가던 부팀장, 창밖을 내다본다. 창밖... 멀리 육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26. 모니터실 / 낮.

막막한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는 한과장. 채운, 충혈된 눈으로 한과장을 다그치고 있다.

채운 왜 말 못하시는 거예요? 이상목... 정체... 뭘니까?

한과장 나중에. 하 경위 나중에 말해 줄게요.

채운 나중에 언제!? 인질 다 죽고 난 다음에요!?

소란스런 채운의 뒤에서... 요란하게 들려오는 일갈. “하 경위!!” 채운을 말리듯 옆에 서 있던
혁수, 한과장이 놀라 돌아보면... 문청장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우뚝 서 있다. 그 뒤로 공비서
와 국정원 요원들이 들어온다. 영상 통화벨 소리 들려오고.

김경장 전화 왔습니다!

채운 (버럭) 받지 마!!!!

버럭하는 채운의 기함에 얼음이 되는 사람들.

채운 (문청장과 공비서에게 따지듯) 알고 계셨죠?

이상목. 대한일보 기자 아니라는 거 두 분 다 알고 계셨죠?

공비서, 국정원 요원들에게 신호하면... 국정원 요원들이 책상 앞에 다가가 노트북 열고, 자리
잡을 준비를 한다.

채운 (공비서에게) 정준구 팀장 살해당했습니다! 민태구 총에 맞았다구요!

공비서 압니다. 저도 봤어요.

채운 이상목 뭘니까!? 왜 이상목이 누군지 숨기는 거냐구요!?

문청장 (버럭) 하경위!!

문청장 고향에 또다시 얼어붙는 방 안 공기.

문청장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이 민태구 상대할 거야.

채운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문청장 (짜증난 듯 혁수 보고) 애 데리고 나가.

채운 제가 끝까지 커버 하겠습니다!!

문청장 (혁수에게) 못 들었어?!! 데리고 나가라니까!!

무표정한 공비서와 최과장. 뿌리치려는 채운의 손을 짹 쥐고 고개를 내젓는 혁수, 채운을 데

리고 문밖으로 나간다. 뿌리치고 먼저 나가는 채운. 돌아서서 문청장에게 경례하는 혁수. 문청장, 한숨 쉬고는 시선 돌려 버린다. 한과장, 착잡한 표정으로 나가는 혁수와 채운 본다. 상황실을 빠져 나가는 채운과 혁수.

공비서 자, 이제 상관없는 사람들 다 빠져 주세요.
한과장 (최과장이 보면) 저도요?
최과장 예. 나가 주세요. 이제부터 우리 쪽에서 말겠습니다.

먼저 나가는 공비서. 한과장이 문청장 보면, 한숨 쉬고 역시 밖으로 나가버리는 문청장. 한과장과 김경장도 따라 나간다.

27. 수송기 / 낮.

착륙 시도하던 수송기가 갑자기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다. 대원들 모두 그 상황에 의아해하며 술렁인다. 조종실에서 나오는 김소령.

김소령(무전) 주목! 작전 변경! 지금 작전지역 공해상으로 이동한다.

모두, 의아한 시선으로 김소령 응시한다.

김소령(무전) 비둘기 투 사망했다. 즉시 작전 투입이다.

대원들, 묵묵히 김소령 본다.

<인서트 - 바다 상공>

바다 저편 수평선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군용수송기.

28. 상황 지휘실 / 낮.

지도상에서 수송기위치가 방향을 틀고 있다. 그 모습 보며 어딘가 통화하고 있는 작전관,

작전관(전화) 네. 현재 시간, 작전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문청장, 작전관에게 시선 쏠린다. 문청장이 공비서를 보면, 힐끗 보다가 묵묵히 시선 돌리는 공비서. 뭔가 알고 있다.

29. 외부 주차장 + 차안 / 낮.

혁수, 시동 걸고, 팔 하나 창문 밖에 내놓고 손에 든 경찰 배지를 보고 있는 채운에게 담배 하나 내미는데 누군가 획- 뒷좌석에 올라탄다. 혁수와 채운 돌아보면... 한과장이다.
다시 시동 끄는 혁수.

한과장 (슬쩍 밖을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이에요.
혁수 예? 누구... 이상목 기자요?
한과장 네.
채운 ...
한과장 아까 들어온 사람들 국정원 요원들이고...
채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까?
한과장 하 경위 오기 한 시간 전에... 청장님이랑 나도 그때 들었어.
(담배 보며) 나도 하나 줘 봐요.
혁수 (담배 내밀고 불붙여 주는) 아 예...
한과장 (한 모금 내뿜고) 이상목은 신분 세탁한 국정원 블랙 요원입니다.
민태구 조직 탐문하기 위해서 파견된 거고.
혁수 민태구... 북한 간첩입니까? 혹시?
한과장 무기밀매랍니다. 말라카 해협 해적들한테 국산 소총에서부터 기관총,
알피지, 부비트랩, 방탄복. 뭐 안파는 게 없다네요.
채운
한과장 국정원에서 그 사실 파악하고, 이상목 요원을 신분위장 시켜 잠복 시킨 거랍니다.
채운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한과장 민태구가 몰라야 되니까. 채운씨도 차라리 모르고 협상 진행하는 게
민태구 신경 건드리지 않고, 시간 끌기도 편하겠다고 위에서 판단한 거예요.
채운 도대체 민태구가 원하는 게 뭐죠, 그럼?
한과장 우리도 몰라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 경위 잘못 없다는 거예요.
채운
한과장 그 누구도 하 경위 탓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 했어.
어쩌면 저놈, 처음부터 정팀장 그럴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유감이에요.
채운

한과장, 채운 물끄러미 보다가 차 밖으로 나간다.
혁수가 채운 보면... 뭔가 생각하는 표정의 채운,

혁수 하경위야....
채운(전화) (전화를 꺼내 걸며) 어디쯤이야?
민우(전화) 지금 주차장 들어왔습니다.
채운(전화) 안선배 차 보이지. 이쪽으로 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채운을 멀뚱 쳐다보다 키를 뽑아 쫓아 나가는 혁수.

30. 협상 차량 / 낮.

차량 안으로 들어오는 채운과 혁수, 민우와 다빈이 인사한다.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는 다빈.

민우 늦어서 죄송합니다.
채운 정팀장님 얘기 들었지?
다빈 네...
채운 (다빈 보고) 정신 바짝 차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정팀장님 살인범....아직 인질극 벌이고 있어. 인질은 분명 더 있다.
 막아야 돼. 그 인질범... 우리가 잡자.
민우, 다빈 네...
혁수 아니, 뭐가 있어야 잡재. 뭘 으떻게 잡아 우리가?
 우리가 무슨 인터폴도 아니고.
채운 요즘 동남아에 국산 무기 밀매 관련 정보부터 뒤져보고. (전화기 보여주며)
 민태구랑 그의 부하 팔에 특이한 모양의 문신이 있었어. 이거부터 찾아봐.
 민태구와 관련된 건 뭐든지 찾아내.
민우/다빈 넵. (컴퓨터 앞으로 가서 앉는다)
채운 선배는 윤사장 좀 다시 만나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상목이 대한일보 기자
 가 된 건지. 만나보면 분명 뭐든 걸려 나올 거예요.
혁수 근데, 이렇게 우리끼리 막 움직여도 되는 거여?
채운 정팀장님그냥 이렇게 보낼 순 없잖아요.

채운의 말에 민우와 다빈도 채운을 본다.

혁수 그러! 이렇게 보낼 순 없지.
 간만에 몸 좀 풀어 보까. 내 전화 주께 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혁수.

모니터에 자신이 핸드폰으로 찍은 문신 사진이 떠오른다. 다른 문신 사진들과 비교되며 똑같은 모양을 찾다가 똑같은 모양의 문신이 매치된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채운.

31. 상황지휘실 / 낮.

벨소리가 울리면, 최과장을 중심으로 앉아 있던 관계자들이 모두 모니터에 주목한다. 모니터 쪽으로 돌아서는 최과장, 그 뒤쪽 구석, 문청장과 한과장이 묵묵히 바라보고 있다.

32. 모니터실 / 낮.

전화 연결 받은 국정원3이 앞의 국정원1과 2를 본다. 국정원 1이 끄덕이면... 통화 연결된다.
화면 - 태구가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전자패드 보다가 힐끗 카메라를 향해 시선 던진다.

태구(화면) 어? 못 보던 분들이네?
국정원1 국정원의 최천중입니다.
국정원2 박경묵입니다.
태구(화면) 국정원요? 아니 왜 경찰 빠지고 국정원이 들어온 거지?
국정원1 민태구 씨. 이제 장난 그만하고 본론 들어가시죠.
국정원2 이상목... 우리 국정원 블랙 요원입니다. 알고 계셨죠?
태구(화면) (과장) 아- 그래요?
국정원1 당신 지금부터 잘못 판단하면...
한 국가의 정보기관 전부를 상대할 수 있어요.
태구(화면) 거 참... 졸라 무섭네.
국정원1 (떨떠름 보다가) 이상목 요원 돌려줍니다.
태구(화면) 내 모가지 따러 온 사람을 어떻게 그냥 돌려줘요?
국정원2 (보다가) 상그릴라 마운틴. 그것 땀에 그러시죠?
태구(화면) (묵묵)
국정원2 거기 법인대표가 민태구 씨 맞죠?
태구(화면) 이야- 역시 국정원은 다르네. 곰들하곤 차이가 확 납니다.

<인서트 - 상황지휘실>

보고 있는 상황지휘실 관계자들. 문청장과 한과장, 묵묵하니 시선 오간다.

태구(화면) 근데... 상그릴라 그게 영국 회산데 당신들하고 뭘 관계가 있나?
왜 한국 정보국이 설치고 그러니까? 나 외국 사람입니다.
국정원1 국산 무기거래가 문제죠. 이상목 요원 그거 파악하러 갔던 거고.
태구(화면) 그래서, 지금 국정원의 의도가 뭡니까?
국정원1 거래합니다.
태구(화면) 뭘 거래?
국정원1 이상목 요원 풀어주면 상그릴라 마운틴 묵인하겠습니다.
태구(화면) 이야. 국정원이 무기밀매도 눈감아주나?
그건 월권행위 아닌가? 위에 허락받았어요?
국정원2 궁금하면 아예 우리 쪽으로 들어오시던가.
태구(화면) ??
국정원2 이상목 요원 풀어주고, 무기밀매 중지하고, 그동안 자료, 접선처들
저희 쪽으로 넘기면... 민태구 씨 기존 행적들 터치 안 합니다.
태구(화면) 나보고 국정원 프락치가 되라?
국정원1 나쁘지 않은 거랄텐데요.
태구(화면) 그니까, 지금 밥줄 다 던지고 국정원 쫓따구 되면...
살길은 열어주겠다... 뭐... 그런 거죠?

국정원1 서로 더 나쁜 경우의 수는 막자는 겁니다.
태구(화면) (화면으로 바싹 다가가 앉아 얼굴 밀며, 가까이 오라고 손짓한다)

국정원들, 의아해하다가 화면 쪽으로 얼굴 들이밀면.

태구(화면) (손가락 욱하며) 좇. 까!
국정원들 !!

33. 협상차량 / 낮.

모니터 안에 손가락 욱을 하고 있는 용병들의 단체 사진이 보인다.
모니터를 보고 있는 민우와 채운. 사진을 확대해 보면 모두 똑같은 문신을 팔에 하고 있다.
민태구의 용병 시절 사진들이 계속 보여 지며.

민우 ‘데드폴’ 이라는 용병 집단인데, 민태구 어마무시했네요.
이라크부터, 리비아, 필리핀, 리투아니아...가는 전투마다 휩쓸고 다녔어요.
그쪽에선 전설로 통하고요, 단 한번도 동료를 남기고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채운
민우 근데, 한 5년 전 쯤부터 갑자기 사라졌답니다.

사진 속에서 용병 군복을 입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민태구를 보고 있는 채운.

다빈 동남아 시장 한국 무기 밀거래에 민태구가 연관된 흔적이 꽤 많아요.
근데 용병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한국서 무기를 빼냈을까요?
한국 신분도 아예 다 사라졌던데.
채운 중간에 누가 있었겠지....
다빈 사이즈로만 보면, 그냥 좀 흠쳐다 판 게 아니에요.
채운 (뭔가 생각하는)짐 챙겨. (정복을 벗으며)
민우 어디 가시게요?
채운 직접 물어보려.

34. 모니터실 / 낮

<인서트 - 상황지휘실>

보고 있는 상황지휘실의 관계자들... 다들 황망한 표정이 된다.

태구(화면) 자~ 괜한 삽질하지 마시고! 하채운이!
하채운 경위 불러오세요. 난 거기랑 얘기할래.
국정원1 (버럭) 민태구! 지금 우리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태구(화면) (정색) 닥쳐,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무서웠으면
애초에 시작도 않았어! (화면 밖에서) 끌고 와!

화면 - 부하들이 상목 끌고 온다.

화면 - 태구 옆에 꿇어앉혀지는 상목. 입에 재갈을 물은 채 두 손이 뒤로 묶여있다.

화면 - 탁자 위에 있던 38권총 들고 상목 머리 겨누는 태구.

태구(화면) 어쩔 건데? 내가 지금 이 새끼 대갈통 날릴 건데 그럼 니들 어쩔 거냐고!?

국정원1 너도 죽는다.

태구(화면) 뭐 거기서 미사일이라도 쏠 거냐!?

국정원1 못할 거 같아!?

태구(화면) (피식) 이 새끼들... 뭘 짓 하고 있구나?

<인서트 - 상황지휘실>

공비서 한숨 쉬다 최과장 보면... 그저 묵묵히 모니터 보고 있는 최과장.

국정원1 모르겠어? 우리 요원들 임무 들어갈 때 유언장 써놓고 간다.

우리가 이상목 포기할 수도 있어. 대신, 너도 끝이야.

태구(화면) 에이 씨, 안 되겠다! (화면 밖에서) 델구 들어와!

국정원들 서로 바라보며 의아해지는데...

화면 - 부하들이 누군가를 우루루 데리고 들어온다. 손이 묶인 남자와 여자가 부하들 총구에 위협당하며 들어온다. 그리고 그 끝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남매 아이들도 달려온다. 한 국인 가족이다.

<인서트 - 상황지휘실>

황망한 얼굴로 보고 있는 관계자들.

태구(화면) (젠뜰하게) 인사들 하세요~

화면 - 한국인 남자 우물쭈물하면.

태구(화면) 인사 몰라?

한남(화면) 아... 안녕하세요.

화면 - 한국인 여자 울음 터지면... 옆에 있던 꼬마 여자아이가 다가가서 엄마를 안아준다.

표정 없이 그 모습을 보는 태구, 숙 일어서더니 걸어가서 여자아이를 안고 온다. 초롱이에게 사탕 하나 손에 쥐어주는 태구.

태구(화면) 초롱아. 초롱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초롱이 (엄마를 보면 괜찮다고 고개 끄덕이는 엄마) 네잎 클로버.
태구(화면) 네잎 클로버~ (국정원 보면)
국정원 ??
태구(화면) 뭐해, 불러.

<인서트 - 상황실/상황지휘실>

상황실 사람들, 관계자들 모두 황당하게 서로 쳐다보는데...

태구(화면) (총을 들고 이상목 겨누며) 안 불러?
국정원1 (국정원2 보고) 난 모르는 노래야. (민태구가 노리쇠를 당기면) 민태구!!
초롱이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 흐르는 작은 샘터에~

<인서트 - 상황실/상황지휘실>

조용한 상황실과 상황지휘실 안에 초롱이의 동요 소리가 울려 퍼진다. 모두 병쩍 얼굴로 초롱이의 노래 소리를 듣고 있다.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초롱이의 모습.

초롱이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친구야. 빛처럼 밝은 마음으로 너를 닮고 싶어~
태구(화면) 박수~ 자, (사탕 하나 더 주며) 이제부터 아저씨 저 사람들이랑 얘기 좀 해야 되니까, 잠깐만 조용히 해줄 수 있어? (고개를 끄덕이는 초롱이)

엄마가 와서 초롱이를 데려간다.

국정원1 너 지금 뭐하자는 거야?
태구(화면) 뭐하긴, 가만 보니까 내 히든이 몇 장 더 있더라고.
 (상목 머리 총 겨누고) 어차피 이상목이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국정원1 민태구!!
태구(화면) (힐끗) 왜? 죽이지 마?
국정원1 잘 생각해라. 잘...
태구(화면) (피시식) 미치겠지?
국정원들 ...
태구(화면) 아무생각 안 나지?
 요런 히든이 또 얼마나 더 있을까 궁금해 죽겠지?
국정원들
태구(화면) (상목의 머리에 총구 다시 겨누고) 지금 당장 하채윤 불러와.

<인서트 - 상황지휘실>

공비서와 최과장이 눈을 맞추면, 공비서가 문청장 보고 끄덕인다. 지켜보던 한과장과 김경장이 급하게 뛰어나간다.

태구(화면) 삼십 분.
국정원1 한 시간. 하경위가 거부할 수도 있어.

태구(화면) (물끄러미 보다가) 삼십분 넘기면, 이상목 죽고 시작한다. 오케이?

화면 정지되며 통화 끝난다. 의자에 등 문으며 한숨 쉬는 국정원1,2.

35. 건물 입구 / 낮.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전화를 걸며 뛰어 나오는 한과장과 김경장.

한과장 (혼잣말) 아, 왜 전화를 안 받아?!!
김경장 (전화 끊으며) 사무실에는 안 들어왔답니다.
한과장 아, 씨....(신호가 떨어진다) 하경위!! 어디예요, 지금?!!!
채운(전화) &^%\$##*((*&%\$#\$%\$%^&*
한과장 하경위?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경위!!!

알 수 없는 소음이 계속 들리자, 인상을 쓰는 한과장, 보면 건물 입구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 다가가 보면, 채운 일행이 막아서는 경비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36. 수송기 + 상공 / 낮.

수송기 뒷문이 열려 있고... 대원들과 장비적재함이 대기 중이다.
수송기 하사관이 손으로 신호를 보낸다.

하사관 오! 사! 삼! 이! 일! 하강!

장비적재함을 매달고 함께 차례대로 뛰어내리는 대원들과 김소령. 끝없이 펼쳐진 구름 위로 자유 낙하하는 대원들. 김소령의 신호에 고공 글라이딩 낙하산이 펴지고,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 유영해 나아가며 바다 위로 점점 가까워지는 대원들,

37. 복도 / 낮.

코너를 돌아 다급히 뛰어가는 채운과 한과장. 그 뒤로 큰 가방 들고 배낭 메고 김경장을 쫓아 뛰어오는 민우와 다빈의 모습도 보인다.

38. 상황지휘실 / 낮.

채운이 들어서면... 공비서와 최과장, 문청장, 작전관 등이 채운 본다. 공비서 다가오면 그 앞에 우뚝 서는 채운... 전에 없이 차분하다.

채운 전부 넘겨주세요.
공비서 뭘...?
채운 가지고 계신 정보들. 민태구와 이상목, 그 외 뭐가 됐던 다 공유하시죠.
공비서 (최과장 보다가) 일단 알겠습니다.
채운 그리고. (공비서가 보면) 민태구는 이제부터 저만 상대 합니다.

공비서, 다시 최과장 힐긋 보면... 끄덕이는 최과장.

공비서 좋습니다.

채운이 쳐다보면 문 앞에서 서있던 김경장 따라서 민우와 다빈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모니터 실로 들어간다. 못마땅하게 이 모습을 지켜보는 최과장과 공비서.

채운 하나 더! 작전 대원들... 제 허락 없이는 발포 못 합니다.

작전관이 뻘히 채운 본다.

<인서트 - 관찰실>

3단 모니터를 펴고 화면들을 띄우는 민우, 헤드셋을 쓰고 김경장의 도움을 받아 급히 TV 화면을 컴퓨터에 연결한다. 펜던트 인형에 입을 맞추고 컴퓨터 옆에 놓는 민우.

채운 안되면 저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공비서 참 나. (작전관 보며) 이건 국방부 쪽에서 결정 해야겠는데....
작전관 (한참 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 알겠습니다.
채운 누구든 중간에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면 막겠습니다. (문청장 본다)

공비서가 최과장 보면.

최과장 우리 도움도 필요할 텐데.
채운 말씀 드렸잖아요. 가지고 계신 정보는 전부 공유하시라고.

다빈이 뛰어 나와 소리친다.

다빈 연결 들어옵니다!

상황실에 울리기 시작하는 영상통화 벨소리. 채운, 꿈쩍도 않고 최과장 보고 서 있다. 최과장, 공비서와 문청장 등을 보다가 옷깃에 달린 소형 마이크에 대고 말한다.

최과장(무전) 전원 퇴거해!

여전히 울리는 벨소리. 모니터실에서 나오는 국정원들.
그제서야 모니터실로 천천히 걸음 옮기는 채운. 그 얼굴에 표정이 없다.
당당히 자기 앞을 지나가는 채운을 그저 바라보는 문청장.

39. 모니터실 / 낮.

모니터실 책상 앞에 앉는 채운, 다빈이 주는 이어폰을 받아 귀에 끼우고 주위를 한 번 둘러본다. 관찰실에 팀원들과 한과장, 상황지휘실에 사람들. 모두 채운을 보고 있다. 한과장이 보면... 깊게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채운. TV 화면에 태구가 나타난다. 차분히 바라보고 있는 채운.

화면 - 태구 뒤로 상목과 아이를 포함한 가족 인질이 서 있다.
아이들의 모습이 채운의 시선에 박힌다.

태구(화면) 바쁘신가 봐요. 한참 기다렸네...
채운 (담담히) 밥 좀 먹고 오느라구요.
태구(화면) (피식) 동료가 죽어 나가도, 밥은 먹어야지. 그죠?
채운 ...네. 아직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태구

관찰실. 민우의 모니터 한쪽에 태구 얼굴이 떠오르고, 눈, 코, 입이 확대되어 눈 홍채의 움직임이 커다랗게 분리되어 보인다. 다른 쪽에는 목소리를 분석하는 그래프들이 보인다. 작은 펜던트 인형과 상자 시계를 꺼내 앞에 놓는 민우, 키보드로 타입한다.

“5월 27일 15시 17분. 남양주. 협상관 하채운. 협상 시작.”

40. 모니터실 / 낮.

화면 - 책상 위에 총 내려놓고 책상에 앉는 태구.

태구(화면) 정 팀장 죽어서 많이 속상하죠?

살짝 흔들리는 채운의 눈동자.

채운 정 팀장님... 저 때문에 죽은 겁니다. 제가 미숙해서...
태구(화면) 에이- 미안하게 왜 그래요?
채운 제가 처음부터 중요한 걸 하나 놓쳤어요.
태구(화면) 뭬?
채운 민태구씨가 이러는 이유.

태구(화면) 그러게. 그게 뭘까? 나도 궁금한데.
채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태구(화면) (흥미로운 듯) 무슨 말?

화면 - 태구, 뒤의 인질들 힐끗 보는데 초롱이 오빠가 다시 훔쩍이고 있다.
민우 모니터의 민태구 홍채가 커지고 표정이 미세하게 달라진다.

민우(무전) 민태구 감정이 흔들립니다.
태구(화면) 애들은 잠시 뺄까? 집중이 안 되네.
채운 (아이들 보고 미소) 전 괜찮은데요.
태구(화면) 아냐, 빼자. (부하들에게) 애들이랑 애 엄마, 옆방으로 보내.

화면 - 부하1이 여자와 애들 데리고 나가는데 여자가 읊소한다.

한여(화면) (싹싹 빌듯) 살려주세요... 애들 아빠... 제발 살려주세요.
태구(화면) (자상하게) 네네. 걱정 마시고. 뭇들 하나?

화면 - 부하1이 인질녀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

다빈(무전) 아이들 얘기를 이어가면 어떨까요?
채운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하시나봐요?
태구(화면) 왜? 그래 보여?
채운 민태구씨 어린 시절이 궁금해지네요.
태구(화면) 내 어린 시절.... 난 그런 거 없는데.
채운 (놀라는 척) 가족들과 보냈던 추억 같은 거 없으세요?
태구(화면) 가족...
민우(무전) 감정 많이 흔들립니다.
채운 네. 부모님이나 형제들...
태구(화면) (말 끊으며) 내가 채운씨 왜 다시 불렀는지 궁금하지 않아?
채운 ...궁금해요. 저랑만 얘기하겠다고 하셨다던데.
태구(화면) 나인 일렉트릭스 구관수 회장.
채운 ??

<인서트 - 상황지휘실>

모니터 보는 공비서와 최과장의 시선이 바쁘게 오간다.

태구(화면) 불러와. 그럼 왜 채운씨 불렀는지 알려 주께. 한 시간 준다.
채운 잠깐만요!

화면 정지되며 통화 끝난다. 한과장에게로 고개 돌리는 채운.

채운 구관수 회장, 누군지 아세요?
한과장 이름은 들어봤는데... 일단 소재파악부터 하죠!

상자 시계의 타임워치를 한 시간으로 맞추는 민우,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한과장, 상황실로 뛰어 나가고, 한과장 뒤로 들어오는 국정원 최과장. 채운이 보면,

최과장 자료 공유하려고요.

41. 회의실 / 낮.

최과장과 채운이 회의실에 앉아 있다.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는 공비서.
노트북과 연결된 큰 화면을 보며 말을 하는 최과장. 상그릴라 마운틴과 무기밀매, 구관수에
대한 자료가 이어진다.

최과장 우리는 민태구가 구관수 회장 찾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채운
최과장 상그릴라 마운틴이라고 민태구가 바지사장으로 있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 그거 애초 만든 사람이 구관수 회장입니다.
지금은 구 회장 빠지고 민태구가 실질 소유하고 있는데
해적들 무기밀매 자금이 전부 거기로 흘러들어 갑니다.
채운
최과장 안 놀라시네.

<인서트 - 공비서>

복도를 걸어 나가는 공비서, 문을 열고 어디론가 나간다.
나가 보면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보이고 사복 경비 두 명이 서 있다.

채운, 화면에 뜨는 상그릴라마운틴 자료들 본다.

최과장 어쨌든, 그게 애초 구관수 회장이 무기 로비에서 나오는 리베이트
역외탈세용으로 만든 회사였습니다.
채운 그럼 민태구는 구 회장 사람이었네요?
최과장 그런 셈이죠. 민태구가 영국 시민권 얻는 일도 구 회장의
백업이 컸고... 근데 민태구가 독자적으로 말라카 해협에서
무기밀매 사업을 시도하면서 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채운 ...

<인서트 - 공비서>

경비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공비서, 카드를 꺼내 대고 VIP 라고 써진
버튼을 누른다.

최과장 구 회장이 국정원에 이런 사실 알려오면서 일종의 자수를 했고
탈세액 천오백만 볼 모두 자진 신고했습니다. 당국으로부터는
면죄부 받았고요. 우리 안테나에 민태구 들어온 것도 그때쯤이고...

채운 구회장이 민태구를 배신한건가요?

최과장 그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이...

채운 (말 끊으며) 5년 전.

최과장

<인서트 - 공비서>

콧노래를 부르며 서 있는 공비서,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문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경비
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공비서.

최과장 (채운 보다가) 하 경위님... 우리도 땀 거 없습니다.
저기 있는 이상목 요원, 그리고 가족 인질들 구출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채운 알고 있습니다.

최과장 그럼... (일어나는데)

채운 구 회장, 지금 어디 있어요?

최과장 (보다가) 이 건물이 어딘 것 같습니까?

채운 ?

<인서트 - 공비서>

복도를 걸어 나가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최과장(소리) 나인 일렉트릭스 최첨단 무기 연구소. 이번 작전의 모든 재원과
장소, 장비 지원... 구 회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채운 ...

<인서트 - 공비서>

공비서가 다가가 인사하면, 앉은 채 고개를 돌리는 남자.....구회장이다.

42. VIP 실 / 낮.

고급 테이블, 정갈하게 놓여있는 다과세트, 시종드는 미끈한 제복의 여비서들, 폭신한 가죽 소
파에 앉아있는 3명의 사내들. 나인 일렉트릭스 구회장(60대), 국정원 2차장 박차장(50대), 별
3개의 군복차림 공군 사령관 손중장(60대). 그 사내들 너머 정면에 설치돼 있는 대형 모니터.
모니터에서는 상황실에 보이는 모든 장면들과 상황실 CCTV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

공비서 (전화 끊으며) 지금 올라오신답니다.

급히 자리에 일어서 문 앞에 줄을 서는 VIP들.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안으로 걸어온다.
제일 중앙 상석에 앉는 청와대 국가안보수석 **황주익(50대)**

박차장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황실장 아니, 저녁 모임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앞에 놓인 과자 하나 집어 먹으며) 어떻게 되가구 있나요?
구회장 생각보다 세게 나오네요.
박차장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없겠는데요.
구회장 제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실장 (손증장에게) 작전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손증장 네 시간 정도 남은 거 같습니다.
황실장 네 시간이라...
구회장 신경 쓰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황실장 (시계 보다가) 이거 보구 가구 싶은데, 모임 전엔 다 끝나려나?
구회장 그 전엔 끝날 겁니다.
박차장 수석님. 걱정 말고 일 보시죠. 제가 끝까지 남아 있겠습니다.
 공 비서관도 있고 하니...
황실장 괜찮아요~ 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시간 좀 있으니까 뭐... 금방 끝나겠지...
 (여비서들에게) 야. 니들도 행여나 저런 놈 만나면 인생 쫘이다. 알지?

여비서들, 수줍게 입 가리고 웃는다.

43. 윤사장 집 주차장 / 오후.

여행용 캐리어를 차에 싣고 있는 윤사장. 문을 열고 주차장으로 나오는 부인, 딸.
급히 차에 오르는 윤사장 가족들. 주차장 문이 열리고 차가 출발하는 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앞을 가로 막고 멈춰 선다.

윤사장 (차에서 내리며) 당신 뭐야?

막아선 차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면 윤사장을 보며 미소 짓는 혁수의 얼굴.

CUT TO:

운전을 하고 있는 혁수, 이어폰을 끼고 통화중이다.

혁수(전화) 어, 윤사장한테 이상목 신분위장 사주한 사람...
 국정원 2차장 박인규라는데? 이거.... 뭔가 냄새가 심하게 나네.

44. 관찰실 + 상황 지휘실 / 낮.

관찰실에서 전화를 끊는 채운이 돌아보면, 상황지휘실의 관계자들 모두 대기하듯 입구 쪽을 응시하고 서 있다. 문이 열리고 공비서와 함께 안으로 들어서는 사내... 구회장이다. 한과장, 문청장도 구회장을 보고 인사한다. 구회장을 유심히 보는 채운. 구회장이 채운을 알아보고 모니터실로 걸어 들어온다.

구회장 고생 많으십니다. 하채운 경위님?
채운 네. 구회장님?
구회장 (손 내밀며) 구관수라고 합니다.
채운 (손 안 잡고 고개만 숙인다) 상황은 다 알고 계시죠?
구회장 네. 오면서 들었습니다.
채운 그럼, 일단 들어가실까요?
구회장 그러시죠.

채운과 한과장을 따라 모니터실로 걸음을 옮기는 구회장. 상자 시계의 시간이 5분 남아 있다.

45. 모니터실 / 낮.

채운이 책상 앞에 구회장 안내하면 자리에 앉는 구회장.
김경장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상황지휘실에 문청장을 보는 한과장, 채운에게 다가온다.

한과장 이제부터 저희는 밖에 있겠습니다.

채운, 한과장과 김경장이 함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문청장을 쳐다보면, 채운을 바라보던 문청장이 시선을 돌린다.

채운 (가벼운 미소) 긴장되세요?
구회장 긴장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죠.
채운 민태구...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구회장 아는 사람 소개로 홍콩에서 만났는데... 제 일이 일이다 보니
 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현지 경호를 좀 부탁했었습니다.
채운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인가요, 민태구?
구회장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완력을 쓰는 사람이라기보다 영리한 사업가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 하나 같이 만들면서 인연이 여기까지...
채운 이 작전에 전액 지원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구회장 (채운 보다가) 허, 이거.... 내가 취조 받는 느낌이네.
채운 죄송합니다. (미소) 제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어서....

울리는 벨소리.

다빈(무전) 연락 들어왔습니다.
 채운 언제든 제가 구 회장님 대화 끝을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편하게 대화 하시면 됩니다.
 구회장 알겠습니다.

채운, 끄덕이면... 민우가 연결. 화면에 나타나는 태구.

화면 - 태구 뒤로 상목과 한국인 남자 인질이 그대로 있다.

화면 - 태구가 구회장 알아보더니 벌떡 일어나 구십 도로 인사한다.

태구(화면)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구회장 (한숨처럼) 아... 그래. 잘 지냈나?
 태구(화면) 네! 잘 지냈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구회장 그럭저럭... 괜찮네.
 태구(화면) (자리 앉는) 많이 바쁘실텐데 오라가라... 정말 죄송합니다!
 구회장 민 사장... 이 수밖에 없었나?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태구(화면) (뒤의 인질들 의식하며)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구회장 자네한테 회사도 다 넘겼고... 만약 우리 사이에 못다 한 계산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 다 치르겠네.
 태구(화면) 정말이십니까? 정말... (꾸벅)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인서트 - 상황지휘실 / VIP실>

상황지휘실의 관계자들... '역시' 하는 표정이 된다.

VIP 실의 사내들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반면 채운, 동요가 없다. 뭔가 유보하는 표정.

구회장 자네 원하는 게 뭔가? 만약 이 자리가 불편하면 따로 만나서....
 태구(화면) 자리가 불편한 건 아니고... 상그릴라 스위스 은행 입출금이 막혔습니다.
 개들이 계좌를 안 열어줍니다.
 구회장 그건, 내가 바로 해결해 주겠네.
 아무래도 은행 계좌에서 내 이름이 빠지니까 그런 걸 거야.
 태구(화면) 아!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구회장 뭐 탄 건 없나?
 태구(화면) (곰곰이 생각하는 시늉) 탄 거는... 탄 거가... 뭐...
 (문득) 아! 현주는 왜 죽이셨습니까?
 구회장 !!!!
 채운 ??

<인서트 - 상황실/VIP실>

상황실의 관계자들, VIP 실의 사내들... 동요하는 표정들 스케치.

구회장 (표정 굳어지며) 죽이다니... 그게 뭘 소린가? 누구?
태구(화면) 한남동 살던 유현주요. 열흘쯤 됐나? 신문에도 났던데...
채운 !!!!

“쿵! 쿵! 쿵쿵...!!” 채운, 심장이 뛰어오기 시작한다. 서로 눈을 맞추는 민우와 다빈.

구회장 무슨 얘기 하는 건가? 그게 왜...
태구(화면) (그 의뭉한 표정으로) 아 진짜 유현주 모르세요?

<인서트 - 상황지휘실/VIP실>

상황지휘실과 VIP 실...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본다.

채운, 떨리는 시선을 감추고 화면 속의 태구와 구회장을 번갈아 본다.

구회장 (미소) 민사장, 농담이 심해. 내가 스위스 계좌만 해결해주면 되겠나?
태구(화면) 그거면 충분한데요... 근데 유현주 모르신다니까... 그게 좀 찝찝하네.
구회장 (담담한) 태구야...
태구(화면) 네, 회장님.
구회장 무슨 속셈인지 몰라도, 너... 그러다 다친다.
태구(화면) 아니 전 그냥 유현주를 아냐고 물어보는 건데...
뭘 다치고 그런다고 그러시고... 채운씨.
채운 (긴장 누르고) 네.
태구(화면) 유현주 몰라?
채운
태구(화면) 왜, 열흘 전에 한남동 인질사건! 그거... 당신 출동한 거잖아.
정팀장이랑 같이.

채운, 정지된다. 채운의 그 황망하고 어지러운 시선으로 점점 다가가는 카메라.

<인서트>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유현주를 끌어안고 소리치는 채운, 응급요원들에게 밀려나 앉아
넋 나간 표정으로 현주를 바라보는 채운의 허탈한 눈동자로 카메라 줌인!**

카메라, 그대로 채운의 눈을 빠져 나오면... 불편해 보이는 채운의 얼굴.

다빈(무전) 경위님. 괜찮으세요?

걱정스런 표정으로 그 모습을 보는 민우와 다빈.

화면 - 태구, 턱을 속속 굽으며 채운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

태구(화면) 채운씨. 진짜 몰라? 유현주?
 채운 압니다...
 태구(화면) (반색하는) 그지? 기억나지? 그 거 어떻게 종결됐지? 단순 강도?
 채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구(화면) 채운씨도 그걸 믿어?
 채운
 태구(화면) 거기서 그림들 못 봤어?
 채운 그림이요?

<인서트 - 플래쉬 백. 방안>

벽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금고가 노출된 채 열려있다. 천천히 다가가 금고 안으로 들어가는 채운. 웬만한 작은 방만한 금고 안. 현금다발과 금궤. 그리고 한눈에 보기에 세제적인 명화들. 피카소, 엔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이 비닐에 싸여 있다.

채운 봤습니다...
 태구(화면) 그림들 주인은 찾았고?
 채운 네. 근데 이미 사망한 후라...
 태구(화면) 사망? 아님데. 멀쩡히 살아 있는데. 그 그림 주인....
 채운 ...?
 태구(화면) 당신 옆에 앉아 있잖아.
 채운 !!
 태구(화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동 소유자 중 한명인거지. 맞죠, 회장님?
 채운 (놀람. 구회장 바라보면) ...

구회장, 표정이 가신다. 어떤 긴장도 흥분도 없는 석상 같은 얼굴.

<인서트 - 상황지휘실/VIP실>

상황지휘실의 관계자들, VIP 실의 사내들... 정적 속에 굳은 얼굴로 모니터 보고 있다.

구회장 태구야. 소설까지 써가면서 얻어내려는 게 뭐야?
 태구(화면) 아, 회장님은 스위스 은행 계좌만 열어주면 된단니까요.
 그리고 현주 왜 죽였는지, 그것만 얘기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구회장 난 니가 말하는 유현주가 누군지 몰라.
 태구(화면) 채운씨.
 채운 네.
 태구(화면) 채운씨도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
 채운 (구회장과 태구 보다가) 아뇨.
 구회장 (황망히 채운 보는)
 태구(화면) 그지? 근데 회장님은 날 거짓말쟁이로 모시네. 섭섭하게.
 채운 왜 구 회장님이 유현주 씨를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태구(화면) 아. 사실 유현주가 우리 구회장님 비자금 관리 비서였거든.

현금은 얼마 안 돼. 십억이나 되려나.

채운 ...

태구(화면) 고거는 비상용이고~ 진짜는... 아 회장님! 말해도 될까요? 이런 거까지?

구회장

태구(화면) 여튼 진짜는 그림이거든~ 그 그림들을 현주가 관리하고 있었던 거지.

채운 씨! 그때 그림 몇 개 나왔어?

채운 (생각하며) 다섯 개요.

태구(화면) 그래~ 원래 이번에 열세 개 들어갔었는데 다섯 개 남은 거야.

그럼 여덟 개는 지금 어디 있을까?

채운

태구(화면) 한 점 당 최소 100억을 호가하니까....

열 세 개면 얼마야? 이만한 돈세탁이 없어요.

<인서트 - 상황지휘실/VIP실>

상황지휘실의 관계자들, VIP실의 사내들 스케치. 무표정한 황실장의 얼굴.

태구 (채운 보다가) 아이. 아직도 내 말 못 믿나본데. 야, 그거 틀어봐.

무심한 태구의 얼굴 위로 노이즈 살짝 섞인 녹취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구회장 사령관님... 아니 형님. 전투기 성능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솔직히 F19든 21이든 다 훈련용이고 디스플레이용 아닙니까?
여차피 기능 많아봤자 조종사들 대부분 사용법도 다 못 익히고 은퇴합니다.

손증장 언론에서 자꾸 들쭉시는데 피해갈 재간이 없어.
1년 만 기다리면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모델이 나올 텐데
왜 하필 지금 재고떨이를 해주냐며 난리라고!

<인서트 - 상황지휘실/VIP실>

상황지휘실의 관계자들 충격 받은 얼굴이고, VIP실의 사내들 일그러진다.
VIP의 얼굴들이 차례로 보여 지며 대화 이어진다.

이때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 들린다.

황실장 어이~ 내가 많이 늦었지?

손증장 아이고~ 수석님, 오랜만입니다.

황실장 정태야. 니가 요새 나한테 불만 많으면서?

손증장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황실장 니는 내가 내 배 채우자고 이러는 것 같나?

손증장 아닙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제 말은...

황실장 VIP하고 얘기 다 끝났다. 그 양반도 우리하고 한 배 탔다고.

태구가 신호하면 목소리가 멈춘다.

태구 귀에 익은 목소리도 들리지?
채운 (지긋이 눈감는 구회장을 쳐다보며) 네...

혼란스러운 표정의 채운.

<인서트 - VIP실>

VIP실의 황실장, 손중장, 박차장 표정들.

무표정하게 태구를 바라보고 있는 구회장.

태구 우리 회장님은...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중요한 대화는
 꼭 녹음을 해 두시거든. 아마 지금도 녹음되고 있을걸. 일종의 보험이지.

<인서트 - VIP실>

잔뜩 긴장한 표정의 유현주, 구회장 노트북에서 녹취 파일들을 USB에 옮기고 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구회장, 보면 어느새 유현주가 서서 인사하고 외투를 받아준다.
USB를 자기 주머니에 슬쩍 숨기는 현주.*

채운 그럼 이걸 유현주씨가...?

아무 표정 변화가 없는 구회장.

태구(화면) 이제 상황 접수 다 됐어요?
채운 네.
태구(화면) 어떻게? 이걸로 구 회장 패거리, 싹 체포할 수 있겠어?
채운 녹취 파일은 증거로 채택되기 힘듭니다. 특히 저런 상황이라면.
태구(화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채운 네.
태구(화면) 음....그래! 판 좀 키우지 뭐.
채운 ?!!
태구(화면) 현 국가안보실장 황주익!
채운 !!
태구(화면) 정확히 한 시간 뒤에 이 자리에 그 분 안 계시면,
 여기 인질들은 다 죽습니다. 초롱이까지 다.

화면 정지되며 통화 끝난다. 완벽한 정적. 채운의 얼굴... 묵직하다.

채운 민태구가 한 말... 모두 사실입니까?
구회장 (일어서며) 하 경위님. 세상 제일 못 믿을 게 뭔지 아십니까?

채운
구회장 궁지에 몰린 인간의 세 치 혀입니다.

구회장, 밖으로 나간다. 채운, 그런 구회장의 뒷모습을 빤히 바라본다.
다시 상자 시계의 시간을 한 시간으로 맞추는 민우. 다시 시간이 줄기 시작한다.

46. 인질 창고 / 오후.

컴퓨터에 꽂혀 있던 USB를 뽑는 태구. 현주가 들고 있던 그 USB다.
피곤한 듯, 의자에 기대 앉아 눈을 감는 태구의 뒷 모습에서...

47. VIP 실 / 오후.

묵묵히 앉아있는 황실장, 박차장, 손증장... 한동안의 침묵. 문이 열리고, 구회장이 들어온다.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는 구회장.

황실장 잠깐 나가들 있을까?

여비서들, 인사하고 황급히 밖으로 나간다. 황실장이 박차장 보면, 박차장이 일어나 구회장의 양복 상의를 뒤져 안주머니에 꽂혀 있는 녹음펜을 찾아낸다. 황실장 앞에 녹음펜을 가져다주는 박차장. 녹음펜을 들고 살펴보다가 확 꺾어 탁자 위로 던져 버리는 황실장. 날아간 녹음펜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버린다.
막막히 구회장 바라보다 고개 떨어지며 깊은 탄식 쏟아내는 황실장.

황실장 다들 내 말 똑똑히 들어.

사내들 ...

황실장 민태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단 하나라도 유출되는 날엔!
우린 모두 손잡고 한강 다리 올라가야 돼.

사내들 ...

황실장 이 방 나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게 뭐다?

사내들

황실장 민태구 제거하고, 그 새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완전히 파괴하기
전까지는, 다들 여기서 단 한 발짝도 못나갑니다! 명심하세요!

일동 ...

난처한 표정의 구회장. 그런 구회장을 쏘아보는 황실장. 구회장, 죽을 맛이다.

48. 나카섬 / 오후.

섬 근처 바다. 경비선 갑판 위에서 사과를 먹고 있던 무장 경비병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먹던 사과를 바다로 던져 버리고 돌아선다.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사과를 따라 내려가면, 경비선 밑으로 지나가고 있는 특수 부대 대원들의 모습.

49. 관찰실 / 오후.

상황판에 붙어 있는 자료들을 유심히 보고 서 있는 채운, 복잡한 표정이다. 상황판에는 태구의 사진과 인물 관계도가 그려져 있다. 이상목, 정팀장, 윤사장, 구회장, 박차장이 있고, 그 옆에 황실장 사진을 붙이고 있는 다빈.

민우(소리) 경위님.

채운이 보면, 민우의 모니터에는 황실장과 구회장에 관련된 자료들이 띄워져 있다.

민우 최근 3년간 굶직한 해외 무기 수입 관련 사업엔, 모두 구회장이
 여여 있어요. 물론 제일 큰 건 이번 차기 전투기 F19 수입이고요.
채운 그 결정에 누가 또 관여하지?
다빈 이 정도급 무기 수입은 보통 공군 사령관 관할이지만, 정부쪽에선
 안보실장이 관여하죠. 그리고 최종 승인은..... 대통령이요.
채운 (혼잣말) 뭐야 이거...
다빈 박인규 차장이 국정원 내에서 안보 담당 업무 맡고 있어요.
 무기 관련된 사업까지 포함해서요.
민우 지금 공군 특수부대가 해외작전을 나간 것도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군엔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채운
민우 경위님. 계속 가실 거예요? 이거.... 덩치가 너무 큰데요.
채운 (민우와 다빈 보고 미소) 끝을 봐야지. 궁금하지 않아?
민우 전 별로...
다빈 네, 궁금해요! (민우가 쳐다본다)
채운 민태구의 동기부터 찾아야 돼. (유현주 사진 보며)
 유현주에 대해 싹 털어보고, 민태구와의 관계부터 살살이 뒤져봐.
민우/다빈 네.

울리는 전화를 받는 채운.

50. 경찰서 + 관찰실 / 오후.

경찰서에서 서류를 보며 나오는 혁수, 주차장을 걸어가며 채운과 통화를 한다.

(전화)

혁수 국정원 박차장 대포폰의 통화 목록 뽑아 봤는데,
수신번호들이 죄다 대포폰이여. 조회 자체가 힘들어.
하경위야, 근데 말이다. 후우... 여기 정팀장 번호가 몇 번 찍혀 있어.

채운 네??

혁수 한남동 사건 전후로 박차장이 정팀장이랑 통화를 했어.

채운 그게 무슨 소리에요?!!

혁수 ...정팀장이 약을 좀 받아먹은 거 같다. 알아봤더니 와이프 밀린 병원비랑
빛도 다 갚았더라고..

채운 ...그럴 리가 없어요. 확실해요?!!

혁수 어~ 내가 다 확인 했다니까...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는 혁수, 자기 차 문을 연다.

<관찰실>

전화를 끊고 혼란스러운 표정의 채운.

<인서트>

- 1썸. 갑자기 나타난 채운을 보고 놀라는 정팀장의 표정.

정팀장 니가 여기 왜 왔어? 휴가잖아.

- 3썸. 전화를 받다가 채운을 보고 놀라 전화를 끊는 정팀장의 표정.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는 채운.

채운 (혼잣말) 아이 씨, 진짜!!.....

채운이 인상을 쓰며 무심코 시선을 돌리면 다가오다 깜짝 놀라 멈춰서는 한과장.

한과장 공비서관이 알아봤는데, 황실장 지금 청와대엔 없고 출타 중이시랍니다.
메시지 남겼다니 연락오긴 할 텐데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네요.

김경장 (급히 들어오며) 하경위님. 청장님이 찾으세요.

채운과 한과장, 어떤 시선이 오가다가 채운 일어서는데.

한과장 저기... 황주익 실장 얘기는 나도 처음 듣는 얘기에요...

채운, 한동안 한과장 보다가... 비켜 지나간다.

51. 나카섬 / 오후.

잔잔한 해변. 수풀 사이로 보이는 깎아지른 듯 한 절벽. 그리고 그 절벽 여기 저기 달라붙어 군장과 총을 메고 해안 절벽을 올라가는 특수 부대원들의 모습에서...

52. 회의실 / 오후.

한과장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오는 채운, 문청장 앞에 앉는다.

문청장 하 경위. 황실장 없이 진행해야 될 거 같아.
채운 (빠히 바라보며) 인질... 죽일 겁니다.
문청장 어떻게든 버텨. 이제 2시간 정도만 버티면 작전 시작 된다.
채운 청장님. 민태구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굴까지 공개한 걸 보면 자살테러일 확률이 높고,
 요구사항이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일단 작전은 보류해주세요.
문청장
채운 너무 위험합니다, 청장님.
문청장 이거... 한참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채운 ...

일어서서 나가는 문청장을 보는 채운, 한과장이 채운을 슬쩍 보고 뒤 따라 나간다.
혼자 남겨진 채운, 긴 한숨을 내쉰다.

53. 유현주의 집 / 오후.

집을 보고 서 있는 혁수, 담배를 하나 꺼내 물고 안으로 들어간다.
집 안으로 들어온 혁수, 시체 표식이 남아있고 여기저기 색이 변해 버린 핏자국들이 보인다.

혁수 그랴~ 뭐. 뭐라도 찾아보자...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가는 혁수.

54. 모니터실 / 오후.

TV 화면을 보고 있는 채운, 상자 시계를 보면, 시간이 00:00 으로 바뀌며 바로 벨소리가 울린다. 카메라, 00:00 으로 바뀐 시계에서 빠져 나와 옆으로 돌면 화면을 보고 있는 태구의 옆모습. 태구를 바라보는 채운의 옆모습이 보여 진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태구

가 채운을 뻘히 보다가 얼굴에 난 흉터를 쓰다듬는다. 그 뒤로 보이는 상목과 한국인 인질.

태구 혼자 있네?
채운 황주익 수석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국정원에서 소재 파악 중입니다.
태구 구 회장은?
채운 (문청장 힐끗 보고) 청장님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심문조사 중입니다.

<인서트 - VIP실>

보고 있는 VIP실의 사내들... 구회장이 묵묵히 보고 있다.

<인서트 - 상황지휘실>

공비서와 최과장. 문청장을 힐끗 보는데 묵묵히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는 문청장.

화면 - 태구, 부하들에게 지시하면... 상목과 인질남을 태구 옆에 꿰어앉히는 부하들.

화면 - 38구경 권총을 꺼내 상목의 머리에 겨누는 태구.

태구 뭐,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니까...
채운 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라 가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찾아서 데려오겠습니다.
태구 안 찾는 건 아니고?
채운 찾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 인질들 안전부터 약속해 주시면...
태구 하채운씨.
채운 네?
태구 황주익 실장. 지금 어딘는지 내가 알려줘?
채운 네??
태구 이거 보고 있을 걸, 아마. (카메라로 다가서며) 그쵸, 황실장님?

<인서트 - VIP 실>

태구의 말을 듣고 놀라는 다른 사람들과 표정의 변화가 없는 황실장.

채운 민태구씨.
태구 ?
채운 당신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런 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인질 풀어주고, 자료 다 넘겨주세요. 제가 도와 드릴게요!

<인서트 - 상황지휘실/VIP실>

상황지휘실의 관계자들, VIP 실의 사내들... 일순 긴장한 모습들.

태구 (피식) 이야~ 세게 나온다 하 경위.
채운

태구 옷 벗어야 될 수도 있을 텐데?
 채운 지금 내 걱정 하는 겁니까?
 태구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
 채운 일단 구회장과 유현주의 관계 밝혀내야죠.
 당신이 말한 그 실소유자들 주변 인물 중 분명 목격자 있을 거예요.
 운전기사든 전비서든, 찾아내 엮어서 유현주와 구 회장 관계까지 파고들면...
 태구 구 회장과 유현주의 관계를 증명하겠다?
 채운 그것만 밝히면, 어떻게든 구 회장의 살인교사 증거 찾아 낼 수 있습니다.
 태구 (채운 보다가)...거기 서울 경찰청장 아직 있지?
 채운 있습니다.
 태구 불러. 채운씨 옆에.

<인서트 - 상황지휘실>

문청장, 앉아서 굳은 얼굴로 화면 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문청장 쳐다본다.
 문청장,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모니터실로 걸어간다.

채운 옆으로 와 앉는 문청장.

태구 지금까지 하채운 경위가 하는 얘기 다 들으셨죠?
 문청장 네, 들었습니다.
 태구 지금 구 회장 심문조사하고 있다는 거 사실입니까?
 문청장 사실입니다.
 태구 내가 그 고위층 명단 밝히면... 유현주 사건 다시 수사할 겁니까?
 문청장 민태구 씨 요구 아니라도 그건 당연히 재수사 들어갑니다.
 태구 그거 공식적인 경찰 입장 맞죠?
 문청장 네. 맞습니다.

55. VIP 실 / 오후.

모니터 보며 침묵 지키고 있는 사내들. 구회장의 얼굴 너머, 황실장... 표정이 없다.

56. 상황실 / 오후.

모니터 보며 전화 받고 있던 한과장, 사색이 된다. 김경장에게 무언가 급하게 지시하며 전화 받고 있는 한과장. 김경장이 인터넷 유튜브 화면 띄운다. 무언가 검색어를 치면 나타나는 창... 현재 태구와 채운의 대화가 동시 생중계 되고 있다. 그 아래 연관 클립들이 시간별로 주루룩 떠 있다. 한과장에게 다가오는 공비서.

공비서 뭘니까? 저게?

한과장 지금 우리 통화 장면... 인터넷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공비서 뭐요? (당황) 아니 그게 말이 돼? 어디서? 어디서 올리는 거야?
경찰요원1 태국쪽 서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비서 황망히 최과장 보면.. 국정원 부하들에게 지시하는 최과장. 국정원들 난리난다.

<인서트 - 모니터실>

모니터실에 앉아 있던 채운이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일어서서 상황실의 대형 화면을 본다.
문청장도 무슨 일인가 일어나 채운 옆에서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란다.

경찰요원2 뉴스에 나옵니다! 국내 케이블 티비!
한과장 빨리 띄워봐!

경찰요원2가 모니터에 TV 화면 띄우면... YTN 뉴스채널 방송 화면. 태구와 채운의 상황실 영상통화 장면과 태구가 정팀장을 쏘는 유튜브 클립 자료 화면이 나가면서 앵커가 속보를 진행 중이다.

앵커(화면) (당황) 아...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일주일 전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이상목 기자의 인질극이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태구가 정팀장을 쏘는 인서트 자료화면 뜨고.
채운과 문청장, 상황실 사람들의 놀라는 얼굴들.

앵커(화면) 아직 진위 여부는 확인되진 않고 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상팀장을 살해했다는 납치범의 주장과 정부 고위직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대화 녹취파일이 영상클립을 통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후략)

충격에 휩싸이는 상황실의 관계자들...

공비서 이런 씨발. 뭣들하고 있어?!! 빨리 방송국 전화하고, 인터넷 퍼지는 것부터 다 막아!!

바쁘게 움직이는 요원들과 한과장. 돌아서서 채운을 노려보는 공비서.
채운, 모니터를 돌아보면, 태구가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57. VIP 실 / 오후.

TV 뉴스 화면 보고 있는 사내들.... 모두 멍해진 표정. 박차장, 전화 받고 있다.

황실장 저게... 뭘니까?

박차장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황실장 생중계?
 박차장 우리 쪽은 아니고 태국쪽 서버라니까... 민태구 짓입니다.
 구회장 (한숨) ...!
 황실장 저 개새끼가 진짜...

58. 모니터실 / 오후.

모니터로 앞으로 다가가는 문청장.

문청장 민태구 씨...
 태구 왜요?
 문청장 지금 인터넷 생중계... 민태구 씨가 하는 겁니까?
 태구 아차. 그거 말 안 했구나. 미안.

일그러지는 얼굴의 문청장, 밖으로 빠르게 걸어 나간다.

태구 지금 조회수가 말이야... (부하들에게) 백만? 이백만?
 (화면 보며) 채운 씨- 이백만 넘었대. 이거 금방 천만뷰 가겠는데?
 채운 민태구 씨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태구 이런 식? 그게 어떤 식인데?
 채운 이런 식으로 저희를 속이면, 제가 민태구씨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 - 채운을 가만히 보던 태구,

태구 나는 널 믿어도 되고? 대답해봐.
 채운 민태구 씨, 저는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태구 닥쳐! 너야말로 어디서 끝까지 구라치고 있어?!!
 구회장이 정말 조사 받고 있어? 황주익이 진짜 연락 안 돼? 확실해?!!!
 채운

갑자기 총을 들어 타앙! 상목의 허벅지에 총을 발사한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상목, 바닥에 피가 흘러 퍼진다. 차분한 얼굴로 그 총을 다시 상목 머리에 겨누는 태구.

<인서트 - 상황지휘실/VIP실>

정신없는 상황에 총소리를 듣고 화면을 보는 사람들과 VIP실의 사람들.

태구(화면) 황주익 실장님! 보고 계시죠? 1시간.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당신 그때까지 여기 안 오면, 전 세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여기 인질들 다 죽습니다.

화면 정지되며 영상통화 끝난다. TV 화면에 반사되는 채윤의 황망한 모습에서.

59. 나카 섬 해안절벽 / 오후.

절벽을 올라와 풀숲에서 재빨리 군복을 입고 장비를 착용하는 대원들, 김소령의 신호에 재빨리 움직인다. 정글 속을 달려가던 대원들, 선두에 선 부팀장이 수신호를 하며 멈춰 선다. 뭔가 이상한 듯 주위를 살피는 부팀장, 발밑에 숨겨진 지뢰를 하나 발견한다.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를 하고, 특수 고글을 꺼내 쓰면, 대원들 앞 땅 속에 묻혀 있는 수많은 지뢰들이 보인다. 수신호를 하고 조심스럽게 발을 떼는 부팀장. 다른 대원들이 그 발자국을 밟으며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

60. VIP 실 / 오후.

할 말 잃은 표정의 4명 사내들. 모두가 황실장의 시선을 피하고 있다. 불편한 표정의 황실장. 여전히 묵묵부답 구회장.

황실장	박 차장.
박차장	네.
황실장	구 회장 주연으로 시나리오 하나 만드세요.
박차장	(구회장 힐끗 보며) 네.
황실장	그리고... 작전 바로 시작하세요!
손중장	(눈치 보며) 아직 해가 안 떨어져서 인질이 위험해질 수...
황실장	바로 시작하라고!!!!
	인질이고 나발이고 싹 밀어 버리라고! 알겠어?!!

손중장, 급히 작전관에게 전화를 하고... 흥분한 황실장, 손에 잡히는 대로 치켜든다. 묵직한 차주전자다. 옆에 있던 박차장이 번개처럼 황실장의 손을 잡는다.

박차장	수석님. 진정하십시오.
황실장	(구회장에게 부글부글) 그깟 계집년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상황을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어!! 이런 병신 같은 새끼...

구회장, 묵묵히 전방만 응시하고 있다.

61. 인질 창고 / 오후.

안대를 하고 있는 상목. 태구가 안대와 재갈을 벗겨 준다.

태구 (물끄러미) 이제 어떻게 될까?
 상목
 태구 내 생각엔... 당신 포기할 거 같은데...
 상목 (태구 노려보며) 그럼, 너두 죽어.

상목의 말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태구.

62. 나카섬 정글 / 오후.

대원들이 정글 속에 은폐한 채 주위를 경계하고 있다. 위성전화기로 통화중이던 김소령이 전화를 끄고 대원들을 모은다. 대원들을 쭉 훑어보던 김소령, 입을 떼는다.

김소령 작게 다시 수정됐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타격섬멸전으로 전환한다.
 대원들 (황당) ...
 부팀장 섬멸전 들어가면... 인질들 다 죽습니다.
 김소령 본부 명령이다.
 대원들 (어이가 없다) ...
 김소령 (GPS 확인하고) 현재 위치에서 적 캠프까지 삼십분 내로 최대한 신속기동, 적 캠프 진입과 동시에 섬멸전 실시한다. 이동!

달려 나가는 김소령. 그 뒤로 중무장한 대원들이 따라 달린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밀림 숲을 달려가는 대원들의 모습에서...

63. 유현주의 집 / 오후.

물건들로 어질러져 있는 집 안.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사진첩을 보고 있는 혁수, 현주의 어릴 때 사진들 몇 장 보이다 비워져 있다.

혁수 아, 무슨 찌꺼리기 하나 안 보이냐....

빈 페이지를 넘기다 닫고 일어서는 혁수, 다시 앉아서 열어보면 마지막 장에 사진 한 장이 눈에 띈다. 보면, 어린 아이들의 단체 사진 밑에 ‘1993년 소망 보육원’ 이라고 써져 있다. 사진을 유심히 내려다보는 혁수의 얼굴에서.

64. 관찰실 / 오후.

민우와 함께 모니터를 보고 있는 채운. 모니터에는 현주의 사진과 자료들이 떠 있다.

민우 부모님은 대학 때 돌아가셨고, 전공은 회계학, 졸업 후 4년 전에
 나인 일렉트릭스에 입사 했어요.

채운 민태구와 연결고리는?

민우 둘 다 다른 루트로 구회장을 알고 있다는 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민태구쪽 한국 자료가 너무 없어요.

채운 분명 둘 사이 뭔가 있어. 계속 좀 찾아봐.

그 때, 안으로 들어오는 다빈.

채운 황실장은?

고개를 가로챘는 다빈. 이때 문이 열리며 청와대 공비서가 굳은 얼굴로 채운 앞으로 선다.

공비서 하 경위님.

채운

공비서 황실장님은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 때문에 못 오신답니다.
 대신 인질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채운 (버럭) 그게 무슨 소립니까? 안 오시면 인질들 다 죽습니다!

공비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공비서가 방을 나가려하자 그의 등에 대고 발악을 하는 채운.

채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보 회의를 하고 계신 거죠?

멈춰선 공비서가 돌아서서 채운을 쳐다보다 그냥 걸어 나간다.

65. 방송 몽타주 / 오후.

1) 거리 대형 화면에 나오고 있는 케이블 방송 뉴스. 유튜브 화면 자료화면과 자막이 지나간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속으로 빠르게 지나가지만 화면 속 뉴스는 정속으로 방영된다.)

<사상 초유의 인질극 생중계. 서울지방경찰청 아직 공식적인 입장 내놓지 않아...>

앵커 방금 전 생중계 화면에 나왔던 경찰 간부가
 서울지방경찰청 문종혁 청장이 확실하단 말씀이죠?

2) 전자상가의 TV들.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리포터(화면) 네! 문종혁 서울청장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지방경찰청 현관입니다만 굳게 입구를 막고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서울역 대합실. 인질극 뉴스 속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앵커 사망한 걸로 추정되는 사람, 신원이 나왔나요?

리포터(화면) 네! 오늘 오전 납치범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서울지방
경찰청 위기협상팀의 정준구 경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진위여부는 불분명합니다...

66. 상황실 / 오후.

캠프 지도가 떠 있는 화면을 보며 공비서에게 브리핑하고 있는 작전관.
문청장과 한과장, 채운이 뒤에서 듣고 있다.

작전관 (모니터에 뜬 캠프 지도 가리키며) 저기 보이시죠? 저게 제너레이터와 위성
송수신 서버 장치입니다. 저 발전기에서 아마 캠프 전력 다 나올 겁니다.
저길 파괴하면 일단 위성 방송 송신은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공비서 좋습니다. 저거부터 폭파하시죠.

채운 (듣고 있다가 끼어들며) 저게 파괴 되도 영상통화는 가능합니까?

작전관 안됩니다! 당연히 외부 송수신 끊깁니다.

채운 그럼 인질들 상황을 알 수 없잖아요?

공비서 생중계부터 막아야죠!

채운 인질들은요!? 다 죽이겠다구요!?

공비서 하 경위님! 지금 긴급 상황인 거 안 보여요!? 이거 지금 국가적 재난입니다!

작전관 (채운에게) 카이샷 들어가면... 우리 화면으로 현장상황은 파악됩니다.

채운 대원들에게 저 연결해 주실 수 있죠?

공비서 (한숨) 하-

작전관 그럴 상황이 오면...

공비서 무슨 소립니까?! 군 작전에 왜 경찰이 끼!!

채운 (날카롭게) 인질들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모두가 놀란 얼굴로 채운 본다.

채운 여덟 살, 여섯 살, 애들이 있어. 그 애들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공비서 안되겠네...

공비서가 눈짓하면 뒤에 서 있던 국정원 직원들이 채운에게 다가온다.

뒤에 서 있다가 다가가려는 한과장을 잡는 문청장, 슬쩍 고개를 내젓는다.

채운 나 여기서 또 쫓아내면... 황주익 수석 찾아갑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든 민태구 연락해서 작전 알려 줄 겁니다.

공비서 당신 미쳤어?
채운 아니. 완전 제정신인데! 미친 건 당신들이지!!!

67. 나카 섬 캠프 언덕 / 해질녘.

바다 끝으로 해가 넘어가고 아름다운 석양이 펼쳐진다. 태구의 캠프에 도착한 특수부대원들.
태구의 캠프가 저 아래 보인다. 전자 망원경으로 살피고 있는 김소령.
대원들, 군장에서 카이샷과 방탄헬멧 꺼내 결합하고 장비를 확인한다.
김소령의 신호와 함께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대원들.

68. 관찰실 / 해질녘.

관찰실. 핸드폰으로 혁수가 보낸 아이들 단체 사진을 보고 있는 채운.

채운(전화) 유현주가 고아였단 말이에요?!
혁수(전화) 그건 나도 모르재. 이 사진도 겨우 찾은 거여.
 어쨌든, 지금 소망 보육원에 왔으니께, 뭐든 나오면 전화하께 잉.

전화를 끊으며 뭔가 생각하는 표정의 채운.

채운 민우야. 유현주 어린 시절 좀 다시 파봐. 초등학교 이전.
민우 예? 예.

69. 소망 보육원 / 저녁.

소망 보육원 사무실. 전화를 끊는 혁수에게 여자 한 명이 커다란 책을 들고 다가온다.
1993년 이라고 써진 책을 혁수 앞에 내려놓은 여자.

여직원 이 사진 어디서 구하셨어요? 우리 구사옥 있을 때 찍은 건데.
혁수 아, 그럼 여긴?
여직원 신사옥이에요. 20년 전 쯤 전에 이사 왔어요.
혁수 아...
여직원 1993년에는 저희 보육원에 유현주라는 여자아이는 없어요.
혁수 그래요?
여직원 ...현주라는 애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성이 민씨예요. 민현주.
혁수 네?!! 민현주요?!!

여자가 책을 펼쳐주면, 현주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신상 명세가 적혀 있다.

서류를 유심히 보던 혁수의 표정이 굳는다.

70. 인질참고 / 해질녘.

태구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 영상통화 연결되고 노트북 화면에 뜨는 채운... 태구, 물끄러미 보다가 책상 위의 권총을 천천히 집어 든다. 태구 옆에 다리에 지혈 붕대를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상목이 앉아있다.

태구 (속 보더니) 그럴 줄 알았어.

총을 상목의 머리에 가져가는 태구.

채운(화면) 그거 당기면 다 끝이에요!

태구 (총 겨누 채)

채운(화면) 인질이 살아 있으면 이 협상의 키... 당신이 쥐고 있는 거예요.

태구

채운(화면) 다 왔어요.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구관수, 황주익, 박인규.

그리고 유현주까지. 그들 관계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그들의 비리 밝히는 거.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태구

채운 당신이 이길 수 있다고.

태구

화면 - 태구를 응시하는 채운.

역시 채운 바라보고 있는 태구. 상목의 머릴 겨누고 있는 총구가 위태위태하다.

71. 몽타주 - 나카 섬 캠프 / 저녁.

1) 부팀장과 대원1이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그들 눈앞 저만치, 발전기 시설이 보인다.

2) 김소령과 대원들 2,3,4, 캠프 건물 쪽으로 낮게 움직인다.

캠프 경비들이 한산하게 잡담하거나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다.

3) 대원들을 모두 시야에 넣고 있는 저격수 대원5가 발전기 쪽으로 겨누고 있다.

4) 이 모든 상황들이 개인 카이샷 촬영 장비로 보이는 시점들과 교차한다.

5) 상황실의 모니터에 대원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전송되고 있다.

긴장한 채 보고 있는 작전관, 공비서, 최과장, 문청장, 한과장 등등.

6) VIP실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는 황실장, 구회장, 박차장, 손중장.

모니터실 채운과 태구의 통화 장면도 모니터에 뜨고 있다.

7) 부팀장과 대원1, 빠르게 발전기로 접근.... 폭약 매설 시작한다.

8) 자리를 잡은 김소령과 대원들. 저격병의 조준경에 건물 외부에 경비병들이 보이지 않는다.

저격병(무전) 목표 지점 클리어.

김소령의 신호에 일사분란하게 목표 건물을 향해 움직이는 대원들.

72. 모니터실 / 저녁.

테블릿에 다시 뜨는 채팅창 화면 <작전 개시 임박! 시간 더 끌도록!> 채운, 상황지휘실을 보면 공비서가 바라보고 있다. 작게 심호흡을 하는 채운, 침착하게 표정 변화 없다.

채운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질들 풀어주고....

화면 - 물끄러미 채운 바라보는 태구.

태구 내가 인질 풀어주면... 자기들 살기 위해서라도 현주사건 그냥 묻힌다.
난 그 사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거고.
대한민국 일처리가 그렇게 순진하고 이쁘지 않아.

채운(화면) 아니요!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 아닙니다.
증인보호를 위해서라도 당신은 우리가 지킵니다.

태구 (엷은 웃음) 어이구- 날 지켜주신다고...

채운 정팀장님....저쪽이랑 연관돼 있었죠?
그래서 죽인 거 아닌가요?

화면 - 채운, 묵묵히 태구 보고 있다. 태구의 그 흔들리는 눈동자.

73. 몽타주 - 나카 섬 캠프 / 저녁.

<발전기 부근>

발전기 폭파매설 끝나고 발파장비 들고 이동하는 대원1과 부팀장, 자리를 잡고 발파장치를 누르려는 순간, 코너를 돌아 앞으로 나타나는 경비 두 명. 서로 움찔 바라보는데... 뒤를 살피고 있던 부팀장이 경비 두 명에게 소음총을 발사한다. 총에 맞으며 방아쇠를 당기는 경비병들. 요란한 총소리가 캠프에 울린다.

<폴숲 근처>

건물 근처에서 진입 대기를 하고 있던 김소령과 대원들이 총소리에 긴장한다.

<VIP실 / 상황실>

카이샷 화면을 통해 전송되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들.

<인질창고>

인질창고의 태구... 옆으로 시선을 돌린다.

채운(화면) 민태구씨! 시간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태구 너무 늦은 거 같은데.

채운(화면) (일어서며) 그러니까 자수 하라고!!

민태구가 신호하면 이상목이 끌려나오는데, 몸에 폭탄조끼를 입고 있다.

채운 !!!!!

<폴숲 부근>

김소령을 선두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대원들. 여기저기서 나오는 경비병들을 소음총으로 쓰러뜨리며 계속 진입한다. 경비병들과의 총격전을 벌이는 대원들.

<발전기 부근>

떨어진 발파장치를 주워 스위치를 누르는 부팀장.

<인질창고>

콰광! 하는 소리와 함께 폭음과 진동이 창고를 흔든다. 태구가 시선을 돌리면,

<상황실>

순간! ‘팻!’ 하며 인터넷 전송장면이 그대로 멈춘다.

<VIP실>

VIP실에 연결된 인터넷 송출화면 모니터도 꺼지더니 ‘파뻑!’

다시 7개의 카이샷 화면이 분할 화면으로 나타난다.

박차장 (흥분) 진입! 진입해!!

<상황실>

카이샷 장비로 중계를 보고 있는 상황실. 채운이 모니터실에서 튀어 나온다.

채운 당장 작전 멈춰요! 안에 폭탄이 있어요!!

작전관 !!!!

<캠프 건물 입구>

1층 수색이 끝나자 김소령 수신호로 2층으로 재빨리 올라가는 특수부대. 2층에 남아있는 경비병들을 쓰러뜨리고, 잠겨 있는 문 앞으로 모여드는 대원들. 김소령의 신호에 재빨리 문에 폭탄을 설치하는 대원2.

<VIP실>

모두가 이 모습을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본다. 전화를 받는 손중장.

손중장 인질이 폭탄 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황실장이 무시하며 시선도 돌리지 않자) 그냥 진압해.

<상황실>

전화를 끊은 작전관, 인상 쓰며,

작전관 (무전) 인질이 폭탄 조끼를 입고 있다. 조심해서 진압하도록.
채운 멈춰야 된다니까요...!

답답한 표정의 채운, 돌아보면 공비서, 문청장, 한과장.... 시선 외면한다.
무전기로 달려드는 채운.

채운 멈추라고!!!!

<인질 창고>

김소령의 신호에 문을 폭파하는 대원2. 김소령을 선두로 안으로 들어가면..... 잠시후 ‘과과광!!’ 엄청난 폭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난다.
2층으로 뛰어 올라가던 대원들도 여파에 밀려 나가떨어진다.

<상황실>

모든 사람들이 멍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다. 저격수의 카이샷으로 폭파 현장의 모습이 보이다가 곧 꺼져 버린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던 채운,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린다. 한과장이 잡아주려고 하자, 손사래를 치며 비틀비틀 모니터실로 들어가는 채운.

74. 모니터실 / 저녁.

허탈하게 앉아 있는 채운 앞에 핸드폰을 놓는 민우.

민우 유현주 본명이 민현주였어요. 입양된 후 기록을 삭제되서 못 찾았습니다.

채운이 전화기 보면, 혁수가 보내준 어린 시절 현주와 태구의 사진이 보인다. 사진과 함께 찍힌 문자 ‘민태구와 유현주 친남매여.’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너지는 채운.

75. VIP 실 / 저녁.

화면을 보고 있는 VIP들, 화면이 꺼지자 표정관리를 하며 황실장의 눈치를 보는데...

손증장 (전화 끊으며) 민태구. 인질과 함께 자폭 한 걸로 추정됩니다.

한숨을 내쉬는 황실장.

황실장 술 좀 가져와라.

여비서들이 술을 가져와 따르자, 원샷 하는 황실장.

황실장 어쨌든 수고들 했어요. 박차장, 손증장. 뒷 마무리 잘 하시고.

박차장/손증장 네.

구회장 죄송합니다.

황실장 이제부터 잘 좀 합시다. 이게 도대체 웬 난리납까. 예?

황실장이 눈짓하면 다른 VIP 들 앞에도 술을 따라주는 여비서들.

황실장이 잔을 들면 다 같이 잔을 들며 건배하고 마신다.

76. 모니터실 / 저녁

허탈한 채운의 시선 끝에 화면 속 태구가 고개를 돌린 상태로 멈춰 있다.

그 화면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던 채운의 눈빛이 갑자기 살아난다.

채운 민우야. 다시 돌려봐.

민우 예?

채운 민태구 마지막 영상. 다시 돌려봐. 사운드랑 같이.

민우가 자리로 가 화면을 리플레이 해보면, 화면 끊기기 전 민태구의 영상이 플레이 된다.

유심히 화면을 보는 채운,

채운 다시!! (리플레이를 다시 보고) !!!!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채운.

77. 소망 보육원 구사옥 / 저녁.

아이들 단체 사진 속 ‘소망 보육원’ 낡은 간판을 확인하는 혁수, 보면 사람의 흔적이 없는 오래된 폐건물이다. 폐건물 안을 둘러보는 혁수, 그냥 나가려다가 바닥에 바퀴 자국을 발견한다. 유심히 보던 혁수, 자국을 따라서 건물 뒤로 돌아간다.

78. 상황실 / 저녁.

상황실로 나오는 채운. 사람들과 수고했다며 인사를 나누고 있는 공비서에게 걸어간다.

공비서 수고했어요, 채운씨.
채운 민태구. 살아 있습니다.
공비서 ??

79. 관찰실 / 저녁.

태구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는 공비서, 채운,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

채운 폭파음 소리가 안 들려요. 민태구...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놀라는 공비서, 문청장, 한과장, 최과장.

공비서 뭘 소리야?! 다시 돌려봐!!

다시 화면을 유심히 보는 공비서와 사람들, 분명 폭파음이 들리지 않는다.

문청장 하경위, 이게 무슨...
공비서 (말 끊으며) 그럼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민우에게 신호하면 태구의 협상 화면들이 시간 순서대로 떠오른다. 태구 뒤 벽에 아주 작은 햇빛이 스며들어 있는 게 보인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 조금씩 위치를 바꾸다 사라져 버린다. 화면 밑에 찍혀 있는 시간이 보인다.

채운 햇빛 흔적이 사라진 시간이 현지 시간 5시 8분.
 동남아 시간대로는 아직 해 안 떨어졌어요.
공비서 이게 무슨...?
채운 오늘 한국 일몰 시간 7시 5분!

일동 ??
채운 한국에 있어요, 민태구!
관계자들 !!!!!

80. VIP실 + 상황실 + 소망보육원 / 저녁.

<VIP실>

VIP 들을 모아 놓고 일장연설을 하고 있는 황실장.

황실장 우리가 몇 년이나 더 이 짓 할 수 있겠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고.
 사람이 뒤로 갈수록 편해야지. 안 그래요?

황실장의 얘기를 유심히 듣고 있는 VIP들. 박차장 전화기가 울리자, 황실장이 인상을 쓰며 바라본다. 전화기를 꺼 버리는 박차장.

<소망 보육원>

트럭 한 대가 보인다. 열려 있는 트럭 뒷문으로 들어가는 혁수, 사람들과 물건들이 실려 있던 흔적이 보인다. 바닥에 찢어진 박스 조각을 들어 보는 혁수, 보면 태국어로 써져 있다. 의아한 표정의 혁수, 밖으로 나와 주위를 유심히 살피다가 차 뒷문이 향하는 방향을 따라 걸어간다. 건물 밑에 숨겨져 있던 지하실 창문을 발견하는 혁수, 손으로 유리창 먼지를 치우고 안을 들여다본다.

<상황실>

상황실 대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채운.

채운 지난 3일간 항공과 항만으로 방콕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인물과
 화물 자료를 전부 확인해주세요. 항구와 공항에 설치된 모든 CCTV 와 입국
 심사 자료, 화물 수송 자료, 뭐든 싹 다!!

빠르게 움직이는 대원들의 손과 눈빛들, 모니터에 뜨는 각종 자료들....

한쪽에 서서 계속 전화하고 있는 공비서. 박차장이 전화를 안 받자 답답한 표정이다.

<소망 보육원>

숨겨진 계단을 찾아내는 혁수, 핸드폰 후레쉬로 어둠속을 비추며 천천히 내려간다. 지하실로 내려온 혁수, 어두운 복도를 천천히 다가가는데 방 하나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다. 무슨 소리가 들리자 의아한 표정의 혁수, 천천히 그 방으로 다가간다.

<상황실>

대원 하나가 손을 든다. '나왔어요!!' 앞에 큰 화면에 띄우면,

대원(소리) 청주 공항이요. 이틀 전 새벽 04:47분 방콕발 화물 항공기 입국 심사대입니다. 영진 무역 상사 '고민준' 이라는 여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선그라스를 잠시 벗는 태구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다.

요원3 여기요!!

화면 보면, 태구와 뽀뽀이가 탄 화물차 한 대가 공항을 빠져 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혁수가 찾아낸 바로 그 트럭이다.

<소망 보육원>

어두운 지하실을 천천히 다가가던 혁수, 발밑에 뭔가 걸려서 살펴보면, 뭔가가 커다란 천에 덮여 있다. 천을 천천히 내려보면... 정팀장의 시신이다!

혁수 !!!!

놀라는 혁수, 전화를 꺼내보지만 발신지역 밖이라는 표시가 뜬다. 총을 꺼내들고 다시 빛이 나오는 방으로 다가가는 혁수, 방 안을 보면, 한국인질남이 쓰러져 있고, 다른 가족들은 손발이 묶이고 안대와 재갈이 채워져 있다.

혁수 !!!!

혁수, 가족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하고 다시 총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빛이 나오는 방을 향해 복도를 걸어 점점 다가가는 혁수. 숨을 죽이고 방 안으로 확 들어가며 총을 겨누는 혁수.

81. 나인 일렉트릭스 정문 / 저녁.

특수화물 운반 차량 한대가 정문에 멈춰 선다. 경비가 다가와 운전사와 보조석에 기사를 확인한다. 창문이 열리고 운전사가 서류를 보인다.

경비가 보조석을 살펴보면,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남자.... 민태구다!

82. VIP 전용 지하 주차장 / 저녁.

VIP 실로 가는 직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사복 경비원1,2. 주차장에는 4대의 고급 승용차가 세워져 있다. 인터넷 수리 밴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자, 인상을 쓰며 경비1이 걸어간다. 보조석에서 내려 장비를 꺼내려 뒷문 쪽으로 돌아가는 태구에게 경비원이 다가간다.

경비 이봐. 이 주차장 들어오면 안 돼요. 밖에 붙은 표시 못 봤어?

CUT TO:

경비2가 인상을 쓰며 쳐다보면, 경비1이 뒷걸음질 쳐서 오는 모습이 보인다. 자세히 보면 경비1의 입 안에 총구를 넣고 경비1을 밀고 들어오는 태구. 뒤로 이상목을 데리고 뽀뽀와 부하1,2가 경비2에게 총을 겨누고 다가온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상목과 함께 안으로 타는 태구, 뽀뽀이 손에 든 리모콘을 낚아채고, 같이 타려는 부하들에게 고개를 내젓는다.

태구 나 혼자 간다. (부하들 한 명씩 보고) 수고 많았다.

태구의 얼굴을 바라보는 부하들 앞에서 미소를 짓는 태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다.

83. 소망 보육원 + 상황실 / 저녁.

혁수의 눈앞에 보이는 태구의 인질 창고. 카메라와 의자들이 보이고 다른 한쪽에는 컴퓨터들이 펼쳐져 있다. 한쪽 모니터에는 나카섬 캠프의 모습이 영상으로 보인다. 한쪽에 놓여 있던 채운의 신상 자료를 펼쳐보며 전화 통화를 하는 혁수.

(전화)

채운 민태구는요?

혁수 벌써 내빼부린 거 같다.

채운 인질은 전부 괜찮아요??

혁수 어. 다들 괜찮아. 근디, 이상목은 안 보이는데....

채운 언제쯤 떠난 거 같아요?

혁수 (꺼진 모니터에 손을 대보고) 오래 안됐어. 아직 모니터도 돌고 있고.

채운 !!!!

뭔가를 생각하는 채운. 어딘가 전화를 걸며 급히 나가려는 공비서에게 걸어간다.

채운 지금 황실장과 구회장 어디 있어요?

공비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청와대에서...

채운 지금 제대로 말 안하면, 그 사람들 다 죽을 수 있어!

민태구가 움직였어요!!!

공비서 ???!!

84. VIP 실 / 밤.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의아하게 돌아보는 경호원1,2. ‘푸슛! 푸슛!’ 문에서 나오는 태구가 경호원들의 다리를 쏘 맞춰 쓰러뜨리고 총으로 머리를 후려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목을 끌고 나오려는 태구, ‘탕’ 복도 끝에서 나타난 경호원3이 쏜 총에 어깨를 맞는다. 돌아서며 경호원3을 사격해 쓰러뜨리는 태구,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호원4,5도 쓰러뜨린다. 다시 총 한 발을 맞은 태구, 엘리베이터 버튼을 총으로 쏘버리고 이상목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간다

겁에 질려 있던 여비서들에게 태구가 나가라고 신호하면 모두 뛰어 나간다. 총 소리에 문 밖에 경호원들이 안으로 뛰어 들어와 태구에게 총을 겨눈다. 무심한 표정의 태구, 상목의 옷을 벗기면, 폭탄 조끼가 보인다.

태구 TNT 이십 킬로야. 터지면 이 층은 다 날아가.
열 셀 동안 안 나가면 (리모콘 들며) 이거 누른다. 하나, 둘, 셋....

서로 눈치 보던 경호원들 하나씩 내빼기 시작한다. 다리에 총을 맞은 경호원들까지도 절뚝거리며 밖으로 나간다.

태구 (둘러보고) 이제 좀 조용하네.

이상목을 의자에 앉히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안쪽에 있는 의자를 질질 끌고 오는 태구, 황실장 정면에 놓고 앉는다. 박차장과 손중장은 아직 일어서 있다.

태구 왜 서계세요? 앉으세요.
구회장 태구야. 너 지금...

조용히 하라고 입술에 총구를 대는 태구,

태구 구회장님. 내가 말시키기 전에 단 한 마디라도 하면 죽습니다.

태구를 노려보는 구회장.

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숨 내쉬며 실내를 둘러보는 태구.

태구 여기구나. 현주가 얘기했던 VIP실이... 돈으로 쳐 발랐다면...

85. 경찰 특공대 건물 / 밤.

<사무실 안>

전화를 끊는 경찰 특공대 통신대원이 커버를 열고 긴급출동 빨간 버튼을 누른다.

<대기실>

대기실에 빨간 불이 켜지자 중무장한 특공대원들이 총기를 들고 순식간에 뛰어 나간다.

저격총을 들고 마지막으로 걸어 나가는 저격수.

<주차장>

특공대원들이 올라타자 특공대 차량이 바로 출발한다.

<헬기장>

저격총을 들고 달려와 헬기에 오르는 저격수, 수신호하면 헬기가 바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껌을 꺼내 입에 넣고 씹으며 점점 멀어지는 지면을 바라보는 저격수의 무심한 표정에서...

<밤하늘>

경찰 특공대 헬기가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간다.

86. 엘리베이터 앞 + 계단 / 밤.

엘리베이터로 뛰어 온 채운,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고 있자, 옆문을 열고 비상계단으로 뛰어 올라간다. 쉬지 않고 계속 계단을 뛰어 오르는 채운.

87. VIP실 + 복도 + 헬기 + 건물 입구 / 밤.

<VIP실>

VIP 들과 마주 앉아 있는 태구, 한 명 한 명 보다가

태구	이래서 사람은 평소에 처신을 잘해야 돼.
구회장
태구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
황실장	태구라고 했나? 서로 무슨 오해가 있나본데, 이런 식으로...
태구	오해라.... 무슨 오해요?
구회장	태구야.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를 좀...

총을 집어 드는 태구, ‘탕!’ 구회장의 머리에 그대로 총을 쏜다. 이마 한 가운데 총을 맞고 뒤로 쓰러지는 구회장. 순간 경직되는 다른 VIP들. 태구, 바닥에 쓰러진 구회장을 내려다보며,

태구 ... 쓰레기. 어차피 우린 다 쓰레기야.
(리모콘 탁자에 올려놓으며) 쓰레기는 청소 해야지. 안 그래요?

태구의 모습에 겁에 질려 긴장하는 VIP 일행들. 태구를 노려보는 황실장.

<헬기 안>

저격수 보조가 멀리 보이는 나인 일렉트릭스를 가리킨다. 보조가 조명 라이트를 나인 일렉트릭스로 비추려고 하자 손으로 막는 저격수, 조준경으로 목표 지점을 살펴본다. 빠른 속도로 다가가는 헬기 밑으로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는 경찰 특공대 차량이 보인다.

<복도>

계단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는 채운, 텅 비어 있는 복도를 숨을 고르며 걸어간다.
문 가까이 다가가 손잡이를 내려다보며 심호흡을 하는 채운, 천천히 손잡이를 잡는다.

<VIP실>

태구가 멀리 들려오는 헬기 소리를 듣고 폭탄 리모컨을 누르려는 순간! 사람이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걸 보고 총을 겨누는 태구, 채운인 걸 확인하고 피식 웃으며 총구를 내린다.
죽어 있는 구회장을 보는 채운, 표정 변화 없이 태구를 바라본다.

채운 그만 해요, 이제.
태구 (리모컨 들어보이며) 빨리 피해요, 채운씨. 죽기 싫으면...
채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나 부른 건지.
태구 ??
채운 민현주. 당신의 하나뿐인 여동생. 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말없이 채운을 바라보는 태구.

채운 그 진실..... 내가 밝혀 드릴게요.
태구 진실.....진실을 말해줄까?
채운 ??

태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린다.

태구 진짜 진실은 말야.
채운 ...
태구 현주를 죽인 사람은...바로 나야.
채운 ...?
태구 내가 현주한테 빼오라고 시켰거든. 내 밥줄 지키겠다고, 씨발...
 개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영문도 모르고... 죽은 거야.
채운 ...
태구 이게 진실이다! 하채운, 이제 알겠어?

<지하주차장>

주차장에 도착하는 경찰 특공대 차량, 특공대원들이 차에서 내려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되자 계단으로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주차장 안쪽에서 차 한 대의 라이트가 켜지더니 달려나와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쳐 박힌다. 뒷문이 열리며 나오는 뺑뺑이와 계단 문에서 나오는 부하1,2가 특공대원들을 막아서며 총격전이 벌어진다.

<헬기>

조준경을 보고 있던 저격수가 헬기를 멈추라는 신호를 한다. 공중에 멈춰 선 헬기. 바람 때문

에 헬기가 흔들리자, 끈을 문 양쪽에 걸고 가운데 총을 묶어 거치하는 저격수, 헤드폰을 쓰고 자세를 잡는다. 저격수 보조가 옆에서 전자 망원경으로 거리를 잰다.

<VIP실>

천천히 리모콘을 들어 올리는 태구, 채운을 바라본다.

태구 빨리 나가. 죽고 싶지 않으면.
채운 고작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 빌어먹을 진실, 내가 어떻게든 밝혀낸다니까!!
태구 당신은 (가슴 가리키며) 여기가 너무 뜨거워.
 머리보다 마음이 앞서고. 사기당하기 딱 좋은 스타일.
채운 ...
태구 근데, 현주가 그랬어.
채운
태구 세상은 말야, 그렇게 야들야들한 인간들은 못 버텨.
 심장에 공구리 쳐서 박동이 아예 없는 인간들만 살아남는다니까.
채운 그거 누르면 당신이 밝히고 싶었던 모든 게 다 날아가.
태구 알았으니까, 제발 좀.... 나가라구!!!!!! (총을 들어 채운을 겨눈다)

움직이지 않고 서서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태구를 바라보는 채운.

<지하 주차장>

특공대원들과의 총격전 끝에 부하1이 사살 당한다. 화가 난 뽕뽕이가 소리를 지르며 기관총을 난사한다.

<헬기>

조준경 안에 VIP실 내부와 태구가 들어온다. 화분 때문에 가려져 태구가 잘 보이지 않자, 저격병이 신호하며 헬기 위치를 옆으로 옮긴다.

<VIP실>

태구를 덤덤히 쳐다보는 채운.

태구 이제 진짜 누릅니다.
채운 그냥 놀러, 그럼. 나도 이제 내 눈 앞에서 사람 죽어 나가는 거... 지겨워.
태구 (피식)... 고집 센 거까지 닮았네..
채운 그 목숨.... 잠깐만 나한테 맡겨요. 제발.

태구 채운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채운도 태구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갑자기 헬기에서 쏜 라이트가 안을 비추자 눈을 가리는 채운.

<지하 주차장>

부하2가 쓰러지고 총알이 떨어진 뽕뽕이가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지만, 결국 집중 사격을 맞고 쓰러진다. 뽕뽕이 위로 지나쳐 계단을 오르는 특공대원들.

<헬기>

조준경으로 태구를 보고 있는 저격수. 십자선에 태구의 머리가 들어온다.

저격수(무전) 조준 완료. 발사대기.
(무전) 격발리모컨 지압식으로 파악된다.
 헤드샷 가능하면, 발사해도 좋다.

조준경을 보고 있는 저격수의 눈빛, 천천히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데....

<VIP실>

창문 쪽을 보는 채윤, 앞으로 가서 막아선다. 의아한 표정으로 채윤을 보는 태구.

<헬기>

조준경에 채윤이 가로막자 갑자기 방아쇠를 놓는 저격병.

저격수(무전) 조준 불가. 장애물 출현.

<VIP실>

채윤을 멍멍하게 쳐다보는 태구.

태구 널 또 믿으라고?
채윤 아니. 믿지 마. 아무도 믿지 마.
 민현주. 당신 동생만 생각해.
태구
채윤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사람들 다 죄 값 받고,
 동생 억울한 죽음 밝혀지는 거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죽든지 말든지 니 맘대로 하라고!!

<복도>

계단을 나와 복도를 달려가는 특공대원들, 문 앞까지 다가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간다.

<헬기>

헬기 위치를 옮겨 보지만 태구가 조준경에 잘 잡히지 않는다.

<VIP실>

VIP들, 창문 밖, 특공대원들을 훑어보는 태구, 천천히 채윤에게 시선 돌린다.
민태구를 바라보는 채윤, 뭔가를 직감한다.

채운 (고개 저으며) 안돼! 민태구! 하지마, 제발!!!
태구 (한숨 내쉬고) 채운씨는 협상가로는 짱이야.

태구가 리모콘을 들고 일어서는 순간! 저격수의 조준경에 태구의 얼굴이 보인다. 순간 방아쇠를 당기는 저격수. “탕!!!” 하는 저격총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져 나가며 태구의 머리가 ‘퍽!!!!’하고 터져 나간다.

채운 안돼!!!!

고속으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태구...

뛰어 들어온 경찰 특공대가 재빨리 황실장, 박차장, 손증장을 보호하며 데리고 나간다.

자신을 끌고 나가는 특공대원 손을 뿌리치고 태구에게 달려가는 채운.

채운, 눈을 뜬 채 숨이 끊어진 태구를 내려다본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채운, 고개를 숙인다. ‘으아아아아...’ 그녀의 울부짖음이 공간을 떠돈다.

88. 관찰실 / 밤.

짐을 챙기는 민우와 다빈에게 다가오는 국정원들,

국정원3 (컴퓨터를 가리키며) 이걸 증거 자료로 잠시 보관하겠습니다.
다빈 뭐요? 무슨 증거 자료요?!!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우리 경찰이야!!

다빈을 말리는 민우, 앞에 놓인 펜던트 인형만 챙겨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89. 나인 일렉트릭스 빌딩 앞 / 밤.

황실장 일행이 경비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빠른 걸음으로 1층 로비를 가로지른다. 이들이 차에 올라 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건물 앞에 있던 수십 명의 취재진이 달려와 플래시를 터트리며 질문을 쏟아낸다.

기자1 황실장님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자2 이번 전투기 협상에서 군축에 압력을 넣은 것 인정하십니까?
기자3 구관수 회장과 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필사적으로 이들을 막고 있는 경찰들. 하지만 기자들이 차 주위를 에워싸고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인서트 - 승용차 안>

자신의 차를 둘러싸고 있는 기자들을 바라보는 황실장.

황실장 (인상 찌푸리며) 에이~ 거지같은 새끼들...
박차장, 이거 시나리오 수정 좀 해야 할 거 같은데?
박차장 물 좀 많이 타야 할 것 같습니다.
황실장 북에서 미사일이라도 한 방 쏘주면 딱인데...
박차장 비선으로 연결 한번 해볼까요?

이때 정문에서 뛰쳐나오는 채운. 경찰이 들고 있는 확성기 뺏어 들고 외친다.

채운 전부 이십 미터 후퇴!!!!!!!

채운의 고함소리에 황실장 일행, 보도진들 어리둥절, 채운 보면...

채운 전부 확 뒤로 빠지라고!!!!

<인서트 - 승용차 안>

그때, 황실장의 시선으로 확성기를 들고 고함을 치고 있는 채운을 발견한다.

잠시 후, 승용차에 붙어있던 기자들이 서서히 길을 터주자, 채운이 그 사이로 저벅저벅 걸어 간다. 잠시 후, 승용차 뒷자리의 창문이 스르륵 열린다. 황실장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채운.

채운 안녕하세요! 서울경찰청 위기협상팀 하채운 경입니다!
황실장 어. 수고가 많아... 빨리 길 좀 터봐!
채운 당신을 유현주 살인 공모 및 불법 무기거래!
군수 비리, 각종 뇌물죄와 함께! 국가 반역죄로 체포합니다!
황실장 뭐??
채운 당신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만약 경제적 사정이 안 된다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황실장 (채운 보며) 이런 미친 년이...
(운전사를 향해 버럭) 뭐해! 빨리 출발 안하고!!!!

잠시 후, 부우웅~ 소리를 내며 출발하는 황실장의 차. 동시에 채운에게 달려드는 기자들.
채운을 향해 미친 듯이 질문을 쏟아낸다. 멀어지는 황실장의 차를 보고, 돌아서서 걸어가는 채운의 양 옆으로 공비서, 죄과장, 문청장, 한과장이 양 옆에 서서 걸어가는 채운을 바라본다.
앞만 보고 걸어가는 채운의 모습에서. F.O.

90. 납골묘 / 낮

푸르른 산과 강이 보이는 어딘 가. 채운과 혁수가 나란히 앉아 있다.

혁수 아따 날씨 좋~다.
 채운 담배 하나 줘 봐요.
 혁수 (보며) 원일이여.

주머니에서 휴대용 홍삼 봉투를 꺼내 채운에게 건네는 혁수. 채운이 보면...

혁수 오래 살아야재.
 채운 (피식)
 혁수 그나저나, 정말 관둘겨?
 채운
 혁수 (속삭이듯) 이걸 니만 알고 있어라 잉. 하 경위 요번에 청장님이 일계급
 특진시킨다는 말이 있어. 그라믄 말이여. 경감이여. 나랑 맞짖 뜨는 거여.
 채운 고건 땡기네.
 혁수 그자? 일계급 특진이 보통일이 아니잖애.
 채운 그거 말고.
 혁수 뭐? 나랑 맞짖 뜨는 거?
 채운 네.
 혁수 너 시방 난 진지한디... 근디 말여. 궁금한 게 하나 있는디.
 민태구 리모콘이 꺼져 있었다는디, 왜 막판에 그걸 꺼 버렸으까.
 채운 (주머니에서 등기 우편 봉투를 하나 꺼낸다)
 혁수 뭐여 그게?
 채운 진실.
 혁수 ??

봉투를 거꾸로 들어보면, USB 하나가 툭 떨어진다. 태구가 가지고 있던 그 USB다.
 한숨 내쉬는 채운이 고개를 들면 다빈과 민우가 꽃을 들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고개를
 돌려 뒤쪽 보면, 태구와 현주의 사진이 나란히 놓인 납골묘가 보인다. 유해함 옆에 민태구와
 민현주의 어릴적 사진이 함께 놓여 있다. 납골묘 앞에 서서 태구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던
 채운, 꽃다발을 놓고 돌아선다.

혁수 (쫓아가며) 어디가?
 채운 어디 가긴. 일하러 가야지.

미소를 짓는 혁수, 채운을 쫓아 내려간다. ‘같이 가~’

91. 경찰서 직원 식당 / 낮.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직원식당 자리에 앉는 한과장과 김경장.

한과장 (미소) 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돈까스네.
김경장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
한과장 내일부터. (미소)

돈까스 하나 입에 넣으며 둘러보면, 사람들은 모두 벽에 붙어 있는 TV에 시선이 가 있다. ‘뭐야?’ 한과장이 시선을 돌리면, 앵커의 브리핑과 함께 검찰로 조사 소환되고 있는 황실장과 박차장, 손중장과 다른 뇌물 수수자들의 모습이 화면에 보인다.

앵커 이번 군수비리에 연류되어 있는 고위 관료들의 검찰 소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의 그림 불법 로비 의혹은 물론, 유현주 살해 사건의 연관성까지 점점 더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 소환 조사를 받으러 나온 황실장의 모습이 보여 진다. 포토라인에 서자 기자들의 후레쉬가 쉴 새 없이 터진다.

기자1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황실장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기자1 자신의 군수비리 의혹을 모두 인정하십니까?
기자2 구회장과는 어떤 관계이셨습니까?
기자3 유현주 살해 공모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3을 쏘아보는 황실장, 기자들에게 휩싸여 안으로 들어간다.

<인서트>

집안. 남자아기와 뒤엉켜 놀고 있던 인질남이 부인이 밥 먹으라고 부르자 아이와 함께 부엌으로 걸어간다. 초롱이는 인형을 안고 가만히 TV를 보고 앉아있다. 화면에서는 조사 청문회 화면이 보이고 있다. TV 화면 속 청문회 증인석에 앉아 있는 채윤의 모습이 보인다. 초롱초롱한 초롱이 얼굴에서....

비닐봉투에 넣어져 증거로 제출되는 태구의 USB가 보인다. 화면이 실사로 바뀌며, 무심한 얼굴로 앉아 있던 채윤이 일어서서 증인 선서대에 걸어가 선다. 시선을 돌려 줄줄이 앉아있는 황실장, 박차장, 손중장과 나머지 일행을 내려다보는 채윤. 정면만 보고 있는 황실장. 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읽기 시작하는 채윤.

채윤 대한민국 서울 지방 경찰청 경위 하채윤.
 나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정면을 바라보는 채윤의 단호한 표정에서...

음악과 함께 엔딩 크레딧 오른다.